

강릉

커피의

스토리

커피별 강릉, 풍경의 절정마다 커피가 있다.

강릉
커피
문화제

sponsor  강릉문화재단 (강릉커피축제사무국)
production 강릉문화재단 (강릉커피축제사무국)
homepage www.coffeefestival.net
address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 강릉문화예술관
date of issue 2012년 12월



Gangneung COFFEE story



커피란

커피는 낭만이자 고독이며,
달콤한 행복이자 쓰디쓴 아픔이며,
아름다운 사랑이면서 처연한 이별이고,
발랄한 동심이자 인생의 무게 같은 묵직함이며
더 없이 맑게 지저귀는 산새 소리이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태풍의 그림자 같은 것.
악마의 유혹처럼 한 번 빠지면
공복의 아침이나 나른한 오후 3시,
모두 잠든 밤의 적막까지
가리지 않고 생각나게 한다.
입보다 향기로 먼저 먹는 커피.
비취빛 바다와 솔내음까지 함께 마셔도 좋은 커피.
비오는 날 커피가 더 맛있는 이유처럼
커피잔엔 사람도, 세월도, 풍경도 함께 담기기 때문이리라.
강릉에서,
우리는 날마다 풍경을 마신다.

자판기

동전 한 닢 넣고
꾸욱 눌러주면

아침 햇살처럼 새콤한 유자차,
혹은 허기진 청춘을 달래주는 울무차,
그리고 달디단 밀크커피,
혹은 여인의 향기같은
헤이즐넛 커피를 맛볼 수 있었지.

인생도 이처럼
간단하고 쉬웠더라면.



다른 카페와 달리 여기서 커피를 주문하면
커피를 주문하면 드림이 담긴 컵이 제공됩니다

커피+강릉

커피가 머무는 곳 강릉

커피가 머무는 곳 강릉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이다.

커피 동네에도 사람이 브랜드인 시대.

서울 다동의 이정기, 압구정 허형만, 종로 전광수, 서교동 서덕식,
경기 남양주의 박종만, 분당의 양동기, 대구의 안명규 등등
자타가 고인하는 무림고수들이 많다.

그런데 강릉에는 수도권 부럽지 않다.

한국커피 1세대 보헤미안의 박이주, 테라로사의 김용덕,
한국인 최초 COE 국제 심판관 이윤선, 에티오피아 심권섭,
커피농장·박물관 최금정, 얼마 전 광화문으로 옮긴
히피커피 이병학 선생까지 브랜드로 칭할 만한 고수들이 많다.
물론 이들 외에도 자웅을 겨뤄 보자는 경쟁한 로스터와
바리스타들이 고수의 포스 뽐어내고 있기에
강릉커피의 성장 속도가 눈부신 것이리라.
사실 강릉에는 서울지구, 명주동, 안목, 경포, 사천, 연곡, 영진,
주문진, 정동진 등 해변마다, 마을마다
남부럽지않은 고수들이 등지를 틀고 있다.



커피의 눈물 더치커피 맛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명소,
아직도 통돌이 로스팅을 고집하는 손맛 커피의 대가,
참숯 스모키향이 신비로운 숯불로스팅 명장,
게이샤의 낭만을 한잔에 담는다는 스페셜티 전문가 등등
손꼽기 어려울 만큼 많은 커피들이
최고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산, 들, 바다, 호수 풍경의 백미 위에 물맛의 비밀까지

강릉커피축제는 지난 2007년 11월9일자 중앙일보 김한별기자가 주말 위클리판으로 특별르포기사화한

「커피가 강릉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기사를 보고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한 결과물이다.

2009년 10월. 「10월의 마지막 밤을 강릉커피축제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그해 가을 커피축제는

강릉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다.

사실 커피축제는 지역에서 그동안의 축제와 좀 성격을 달리한다.

일단 커피를 숙주로 하여 축제를 연다는 것이 아이러니라는

반응들이 많다. 특정한 장소도 없으며,

커피를 주산지로 하는 나라도 아닌

강릉에서 커피축제를 한다는 것에 신기해한다.

강릉커피는 일단 맛에서 상당한 수준을 자랑한다.

커피도 차(茶)의 일종이라고 보면

강릉은 차의 역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강릉차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전국구였다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신라시대의 차문화유적지가
 강릉에 있다. 남항진쪽 군부대 내에 있는
 「한송정」이라는 정자는 신라시대의 문화유산이다.
 이곳에서 신라의 화랑들이 차를 달여마신
 다구(茶具)가 유적으로 남아있다.
 또한 경포대를 비롯한 곳곳에서 차를 달여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강릉은 왜 천년 전부터 차로 유명해졌을까?



한송정 들차회와 석구

결국 차는 물맛이 아닐까 생각한다.

차맛이 특별한 것은 차를 다루는 명장의 손길과 함께,
백두대간 심산유곡에서 흘러내리는 석간수(石間水)의
특별한 물맛이 강릉의 차를 유명하게 만든 것이다.

똑같은 음식을 지역이 다른 곳에 가서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도 맛이 달라지는 것은

같은 손맛이어도 물맛에 좌우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강릉커피가 맛있는 이유중 중요한 하나는

바로 물맛의 비밀에 있는 것이다.





풍경도 맛이다! 바다, 호수, 계곡의 엽서같은 풍경

집에서 만들어먹는 커피나 떡볶이보다 카페나 포장마차에서 호호불며 먹는 맛이 더 일품인 것은 다른 무엇보다 풍경과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얼큰한 추어탕이나 된장찌개를 먹다가 프로포즈하면 백발백중 깨지는 것도 그같은 이유이리라.

이왕이면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전망좋은 카페같은 은은한 커피향 흐르는 곳에서 전하는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이 훨씬 낭만적임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겠다.

똑같은 커피라도

호숫가 노을이 지는 풍경이거나,

비취빛 바닷가에 갈매기 몇 마리가 한가하게 노니는 백사장이 아스라이 펼쳐진 공간에서 잔잔한 재즈음악을 들으며

마시는 차 한잔의 여유.

낭만의 맛과 멋이 더하여지니

풍경이 더하는 값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커피꽃도 피는 꽃천지 강릉!

봄날의 강릉은 천지가 꽃이다.

폭설과 춘설의 기억도 녹양방초의 푸른 비에 잊혀졌다.

대지가 네 계절의 기다림 끝에 피워낸 화려한 절정.

‘꽃이 지도록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는

시인의 고백은 그래서 더 절절하게 들린다.

강릉은 천년이 넘는 세월동안 꽃의 땅이었다.

신라시대 강릉땅 ‘하슬라’ 는

화관을 쓴 화랑들의 심신수련장이었다.

강릉태수로 부임하던 순정공의 아내 수로부인은

노옹으로부터 헌화가(獻花歌)를 받는다.

정동진 지나 또 하나의 비경(秘境) 헌화로에

연인들이 찾아드는 것도 그 같은 연유이리라.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대관령 국사성황행차때 부르는 노래
<영산홍가>의 “꽃밭일레”는 천년을 뛰어넘은
아름다운 사랑노래이다. 그 또한 흥겹지 아니한가?

경포팔경중 하나인 강문어화(江門魚花)는
밤바다를 별처럼 수놓는 고깃배들의 불꽃이며,
우리 미술사를 바꿔놓은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조선 최고의 풀꽃그림이었다.
불꽃처럼 살다간 허난설헌의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은
꽃그늘에 서왕모를 만나 천상의 대들보를 올리는 이야기이다.

강릉의 옛 선인들은 봄이면 그 유명한 강릉 꽃자수 보자기에,
진달래꽃으로 빛은 두견주에,
꽃지짐과 꽃떡을 만들어 화전놀이를 즐겼다.



아름다운 조선의 여인 ‘홍장’ 이야기처럼
경포호에 배 띄워 꽃놀이를 즐긴 전통은
오늘의 벚꽃축제로 발현되었다.

빈한했지만 현명했기에, 근심 화(禍)보다는 꽃 화(花)를 즐겼고,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는 탁족(濯足)을 알았다.

그렇게 역사의 구비마다 피워 올린 꽃들은
이제 감자 꽃, 녹차 꽃, 복사꽃을 거쳐 커피꽃에까지 이르렀다.
커피나무가 강릉서 자란다하면 다들 놀란다.
자고나면 하나씩 커피집이 생겨날 정도라고 한다.
그 덕에 인테리어며 간판, 전기 등등의 소상공인들이
즐거운 비명이다. 해마다 커피축제 관광객 수는 늘어만 간다.
강릉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생겨난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지수’ 는 그런 작은 것에서 나온다.



볶아봐야 제대로 커피맛 감별한다. 강릉사람들의 유별난 콩볶는 사랑

홈카페형 미니 로스터기

(수제여야 하며 살짝 우드와 스틸 소재가 섞여 멋져 보여야 함)
을 소장하고 있는 집들이 의외로 많다.

작은 가마솥이나 푹배기도 애용하는 분들이 많으며
수망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다.

숯불 로스팅을 한다며 아파트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
애쓰는 분들을 만나면 무슨 마법에 걸린 사람 같다.

한 겨울 베란다에 죽치고 앉아 10분, 13분, 14분,
맛의 기적을 찾기 위한 무림고수들의 노력들은 오늘도 계속된다.

집에서 커피를 볶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모그 같이 자욱해지는 연기들과 발강게 피어오르는 불꽃,

그리고 사방으로 휘날리는 껍질과 분진은

가히 도삽질(?)의 최고봉이라 할 만하다.

사무실 한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커피를 볶는데 심취한 사람을 만나면 참 신기할 따름이다.

문화예술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느 병원장님도,
지역 신문의 사장님이나 기자님도, 변호사님도,
혹은 대학 교수님이나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볶는다.
심지어 산속의 절집 스님도 커피를 볶아대니
가히 커피별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뒷마당,
산속이나 바닷가 언덕위 어디쯤에 쪼그리고 앉아 커피를 볶는다.
그렇게 밤낮없이 볶아대는 커피가 상당량임에는 분명하다.

볶는 도구들도 참 다양각색이다.
그물망처럼 생긴 수망 로스팅부터
도자기 로스터, 프라이팬, 푹배기며 돌솥까지
별의별 도구들이 동원된다.
그런데 어떤 걸로 볶든, 다들 맛있다고 우긴다.
하긴 에티오피아나 케냐 등 원산지에서는
여전히 그냥 법랑이나 냄비에 커피넣고
그대로 끓여서 마시는 곳이 많은데 우린 지나치게
커피마시는 격식을 따지는 것이 아닌 건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갓 볶은 커피는 그 향과 풍미가 생생하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볶아냈다는 뿌듯함 때문에 특별히 맛있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더하여 어떤 이들은 지하실이나 창고 귀퉁이에 아예 작은 공방을 만들어 놓고 수제 로스터기를 만드는데 심취하기도 한다. 수제 로스터기는 직접 내손으로 만들었다는 기쁨은 물론, 각각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할 수 있어 커피 매니아들은 더없이 부러워하는 아이템이다.

선반에 밀링을 하는 공무원, 목공실에서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켜고 하는 선생님. 밤마다 용접봉을 들고 씨름하는 사장님. 그들이 하나둘씩 담금질해 낼 때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기하고, 멋진 커피기기가 탄생하는 것이다.

2011년 3회 커피축제팬 전국의 수제 로스터기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도 있다. 내 손으로 만든 로스터기. 큰 가마 수준의 로스터기부터 작고 앙증맞은 미니멀사이즈 로스터, 그리고 가히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마리오네뜨 인형 로스터기까지 선을 보였다.

커피기기도 내 손으로 만드는 핸드메이드 시대가 온 셈이다.



이런 도삽질(?)을 밤낮없이 계속하다보니,
여차하면 집에서 무단 방출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밤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밤을 녹여내고 있다.
그들의 놀라운 집념과 불꽃처럼 빛나는 눈빛들이
오늘의 강릉 커피를 일궈낸 것이다.

1970년대 강릉의 다방에서 전시회도 했었다네!

‘문향 강릉’이라는 말이 있다.

문화가 흥하고 예술이 흥한 곳. 문학단체·예술단체가 강릉만큼 많은 곳도 드물다. 논자에 따라서는 강원도 나머지 17개 시·군 전체를 합한 숫자보다 많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 중에 ‘화강회’라는 미술단체가 있는데,

그 40회 기념 전시회에 갔다가 재미있는 도록을 발견했다.

1972년 제1회 화강회 창립전, 등사기로 민 듯한 일명

‘백노지’라는 종이에 등사된 전시회 안내 소책자.

창립전시회 장소가 놀랍게도 ‘보리수다실’이다.

그때 이미 카페에서 미술전시를 했다니

역시 역사는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수레바퀴인 모양이다.

이미 언급했듯 신라시대 최초의 다방이 강릉에 있었던 것 처럼 차와 문학과 예술의 번성이 강릉역사의 한 물줄기였던 것이다.

신라 화랑들의 다방 ‘한송정’, 그곳에 여전히 샘솟는 한송사지 샘터의 물맛은 여전히 깔끔하고 청정무구하다.



강릉커피축제의 시작은 이곳 샘물을 정안수처럼
새벽에 길어다가 한나절 순화 시킨 다음,
커피명인이 신선한 원두를 갈아 추출을 하여
나눠 마시면서 시작된다.
그 커피 한잔에 소망과 다복과 정성을 담아내는 것이다.

보리수다실은 중앙시장 근처 포교당 맞은편
골목에 자리하고 있었다.
70년대 중반까지 강릉에는 현대적 분위기의 전시장이 없었기에
‘다방’은 중요한 전시공간이었다.
2회는 용다방, 4회는 별궁다실에서
화강회 미술전시회는 계속된다.
다방의 특권은 당시만 해도 귀하던
카우치 소파를 들여놓는 것이다.
폭신한 쿠션의 의자는 모던보이 예술가들이
중절모나 화가모자를 삐뚤름하게 쓰고 풍경처럼 앉아있기 좋은,
그야말로 폼나는 일이었다.
그런 곳의 네 벽면에 수채화를 걸고,
혹은 사진을 걸고 음악을 듣거나,
시를 읊거나 그렇게 예술가들의 다방사랑은 한동안 대단했었다.

그리고 80년대를 전후로 하여 본격적인 음악다방이 출현한다. 음악다방은 청바지와 팝송으로 무장한 20대 청년들의 해방구 같은 곳이었다. ‘지직-지직-지직’ 스크래치 사운드가 간간히 들리는 LP판의 추억은 그야말로 ‘젊은이의 양지’ 같은 셈이다. 올드 팝에 양희은, 김기덕, 송승환, 이종환 같은 명MC들의 구수한 입담은 아날로그세대의 마지막 향수이자 오랜 친구들인 셈이다. 최초의 음악다방은 선프라자 맞은편 약국건물 2층에 ‘맥스웰 다방’이란 이름으로 강릉에 상륙했다.



맥스웰은 다른 다방들과 달리 홀 안쪽에 DJ부스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뱅갈고무나무나 아래카야자처럼 잎사귀 큰 화초들이 입구와 중간중간 놓여 있고 쇼파와 난로,

사뭇 명작 분위기가 느껴지는 유화가 걸렸다.

그리고 안쪽으로 LP판이 책장 빼곡히 꽂혀있고 판을 2개 걸 수 있는 독일제 레코드가 들어왔다.

당시 DJ는 2~3명이 돌아가며 진행했는데

제법 팬들까지 거느린 지역 연예인이었다.

여대생들이나 아가씨들은 커피나 주스 따위를

DJ박스 안으로 배달시켜 줬고 조속한 여고생들도

음악신청을 하며 은행잎을 끼워 넣곤 했다.

음악과 함께하는 사연신청을 읽어주는 DJ오빠는

퍼머머리에 도끼빋이 곧잘 어울렸던 모양이다.

80년대 중반들어 보다 모던한 느낌의 찻집이 생겨났다.

그때부터 다방 보다는 카페라는 느낌의 언어가

통용된 것이 아닌가 싶다.

성내동 대학로 중심가 지하에 생겨난 이름하여 <다랑>

김종달 사장이 스물아홉에 시작했다는 이 찻집은

곧바로 문화명소가 되었다.

그가 기억하는 이곳의 단골들은 다양하다.

방송국 기자들은 늦은 밤 문을 닫아걸고 술을 마셔대는가 하면,

모 기자의 경우 신혼에 자주 이곳 쇼파에서 잠을 자니,

어느 날인가 부인이 같이 와 옆에서 자더라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소설가 김별아는 당시 여고생으로 이곳에 드나들었고,

황금찬 시인이나 조병화 시인같은 기라성같은 문인들이

이곳에서 시낭송회 같은 것을 열기도 했다.

처음 접해보는 에스프레소와 원두커피를 만들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이나 종업원들의 경우 커피 만드는 법부터 익혀야

했단다. 이연빈, 신승근 선생님, 심재상 교수 같은 분들이

30대 파릇파릇한 문인들이었으니 20년도 훌쩍 너머의 일이다.

인근 <오솔길>이라는 보다 젊은 청춘들이 찾는

명소가 생기는가 하면, 문화의 거리 2층에 <카사>라는

보다 락발라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공간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렇게 강릉은 오래도록 커피집에서 문학을 얘기했고,

사진전시를, 미술과 음악을 논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강릉의 커피문화가 녹록치 않은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이리라.

오래된 담쟁이넝쿨의 기억 청탐다방

2012년 봄.

다방 뒤뜰 노쇠해진 원추리만큼이나 쇠락한 건물 탓인지,
강릉의 정치 1번지로 이름을 날리던 청탐다방은
기어이 늦은 겨울과 꽃 봄 사이를 건너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골목은 가일층 을씨년스러웠고,
이웃하고 있는 간장계장으로 오랜 세월 입맛을 돋워왔던
일미식당 주인장의 서운한 목소리만 울리는 듯하다.
50년대부터 그 곳을 지켜 왔다는 청탐다방은 오랜 세월,
강릉의 입김으로 통했다.
국회의원이나 관선시대 시장, 군수님들조차 부임하면
이곳에 인사를 오는 것이 전통처럼 여겨지는 시절이 있었다.
과거 문화원장, 상공회의소장, 향교 전교에 이르기까지
이곳의 터줏대감이었다.
그야말로 커피나 쌍화차 한잔씩 시켜 놓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논하던 곳이었다.

오래된 난로, 쉬엄쉬엄 가는 과중시계, 고풍스런 그림,
세월이 느껴지는 엽차잔과 찻주전자는 청탐만의 분위기를
연출해내기에 충분했다.



다방에도 급수가 있다면 이곳이 ‘1급지’ 였노라
 단언하는 분들을 어렵사리 만날 수 있다.
 한때 다방 마담조차 권세를 부렸고,
 손님들 또한 가려 받을 수 있었다는 곳.
 프랑스 카페들이 문학·예술인들의 회합장소에서
 시민혁명을 주도한 정치 1번지로 변모한 때가 있었듯이
 이 곳 ‘청탑’ 또한 강릉의 시대정신을 표방하며
 현대사 흐름의 곳곳을 이정표처럼 지켜왔던 것이다.
 과거 달걀을 살짝 익힌 ‘반숙이’ 에 쌍화차,
 그리고 마치 ‘사이폰’ 처럼 뜨겁게 끓어올랐다가 가라앉는
 일명 ‘냄비커피’ 를 추억하는 이들은 여전히 명주동 골목을
 서성이다가 입맛 짹짹 다시며 발걸음 돌리곤 한다.
 차 문화도 인류의 문명따라 변해 왔듯이 거리를 북적이며
 뒤섞이던 발자국 소리, 유행처럼 실내외를 밝히던
 붉은 조명등의 흔들림이 앨범 속 사진처럼 빛바랜 듯이
 쓸쓸한 늦가을의 낙엽처럼 그들도 잊혀져간다.



강릉의 현대 커피문화 발아지 안목 커피거리 “길다방”

아마도 젊은 보헤미안들은 그 즈음부터
 풍경을 마시기 시작했으리라.
 작은 고기잡이 어선 몇 척이 한가로이
 항구의 한 켠을 지키고 선 곳.
 가구 수라야 그저 50여 호에 불과하니 버스도 하루에 서너 번
 잊지 않고 들러주는 것 만도 고마울 지경이다.
 갈매기 몇 쌍과 계절따라 청둥오리, 해오라기, 고니 같은
 철새들이 강과 바다가 합쳐지는 두물머리 그 곳을 지키곤 했다.
 모래톱을 씩없이 철썩이는 그곳에 자판기는 천국이었다.
 연인과 손잡고 걸어오거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사람들은
 그곳을 순례지 마냥 다녀갔다.
 그렇게 다녀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흑은 흑백 사진으로 “길다방” 이라 이름붙여
 무슨 구전동요처럼 떠다녔다.
 정동진 ‘모래시계’ 와 ‘고현정 소나무’ 보다 먼저,
 그리고 오래도록 안목이 그렇게 뜨고 있었다.



한국의 커피역사는 모두가 독특하고 특색있게 발전했지만
강릉커피 내력의 한 페이지를 단단히 장식하고 있는
안목 커피 자판기는 역사의 산물이다.

1945년 해방이후 37년여 동안 계속된 야간 통행금지는
1982년 1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80년대 들어오면서 뜨거워진 민주화의 열기는
더 이상 청춘들의 밤을 어찌하지 못했다.

밤에 쏘다니는 것이 자유로워지면서 가장 급속도로 팽창한 것이
아마도 자판기 문화일 것이다.



이후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 올림픽을 거치면서
우리의 생활문화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여하튼 안목항의 커피는 특별했다.

처음 시작하는 남녀가 안목을 다녀왔다는 것은
사귀기 시작했다는 목시적인 합의 같은 것이었다.

도심 안에 신영극장 즈음에서 걸어 걸어

안목까지 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열정인 셈이다.

당시 안목의 자판기를 일컬어 사람들은 “길거리 카페” 혹은
“길다방” 이라 했다.

길거리에서 커피를 뽑아들고 백사장을 걸어 다니며
바다를, 낭만을, 청춘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길거리 카페는 워낙에 유명해서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 나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 을
통해 사랑을 고백했다거나, 프러포즈를 받았다거나.

혹은 그곳에서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등등
각양각색 사연들이 넘나들었다.

그리하여 때로 서울이나 춘천, 대전이나 속초 등지의 사람들도
강릉에 와서 안목 길거리 카페를 문곤 했다.

그곳의 풍경도 특별했지만

커피맛에도 남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다른 곳처럼 그냥 커피를 줬다면
 아마도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을 터이다.
 사람들은 첫 입새에서 두 번째 자판기, 다섯 번째 자판기 등등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자판기가 있다고 우겼다.
 처음엔 그것이 단순한 기계적 조작에 의한
 희석의 차이인 줄 알았다.
 하지만 후에 알게 된 것이 기막혔다.
 자판기 주인들은 이미 그 시절에 한국식의 훌륭한 바리스타였다.



자판기 커피에 커피 · 프리마 · 설탕만 넣는 것이 아니라
미숫가루 · 콩가루 · 누룽지 · 참깨 등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어
자판기 각각이 다른 맛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1등품의 사과나 배를 키우기 위해
농부는 1천번이 넘는 손길을 준다고 한다.
수십 만년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파도의 넘나들음으로
바위가 곱디고운 모래로 되었듯이,
수만 번의 흔들림 끝에 꽃이 피듯이,
강릉의 맛있는 커피역사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정성위에 만들어진 것이다.

강릉의 커피 아카데미 일찍부터 커피 공부방 많았네!

공공기관인 관동대, 영동대, 강원도립대, 폴리텍Ⅲ대학,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어지간한 곳에서는 커피아카데미가 있다. 이곳의 커피아카데미는 강릉 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들도 찾아와 접수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대기순번까지 받아 놓아야 할 지경인 곳도 많다. 동방커피학교의 경우 노동부 취업지원과정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어 매번 그 열기가 뜨겁다.

그밖에 중규모 이상인 커피집에서는 별도로 커피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강릉커피아카데미, 테라로사 테스트코스 및 단기세미나, 커피커피 찾아가는 커피교실, 에티오피아 슛블로스팅 코스, 크레마코스타 스페셜티 아카데미, 하슬라 커피아카데미, 산토리니 커피교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 단순히 커피교실만 많은 것이 아니다. 실제 강릉에서 드립만 가르치는 곳은 인기가 없다. 반드시 로스팅교육 코스가 있어야 제대로 된 강좌로 본다.



커피를 볶는 것이 그만큼 보편화 되었고,
그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얘기다.

실제 커피1세대 박이추 선생과 커피작가 황광우 님이
운영하는 강릉커피아카데미의 경우 보통 6개월이 기본이며,
커피이론은 물론 로스팅과 커피핑, 드립 등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6개월에서 1년 과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관동대학교 손병모 교수팀이 운영한
로스팅창업아카데미는 야간강좌임에도 인기리에 진행됐으며,
특히 우리식 커피의 대가 우리커피연구회 이정기회장이
직접 강릉까지 내려와 여러 차례 강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릉의 커피문화는 일찍부터 드립이 아닌

로스팅교육이 자리를 잡으면서

커피애호가들의 수준이 급격히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립대학 평생교육원장 최근표 교수는 이 현상을 두고

‘강릉커피는 커피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

그것은 강릉단오제나 고교대항축구대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하리만치 뜨거운 피가 흐르는 독특한 기질이

강릉사람들에겐 있다’ 고 평한다.

강릉커피는 시민들의 뜨거운 유전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와 커피의 고장 강릉.

대한민국이 커피열풍을 앓고 있을 때보다
훨씬 이전부터 강릉은 커피앓이를 하고 있었다.

커피콩을 달구는 시뵈건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지닌 곳.
거기가 강릉인거다.



강릉에는 커피를 해설해 주는 커피문화해설사가 있다!

커피 한잔을 마시기 위해
 여덟시간씩 차를 달려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들이 맛보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한잔?
 맛있는 무언가를 먹기 위해
 우리가 대도시에 일부러 가지는 않는다.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 갈매기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메아리로 들리는 작은 해변,
 저녁이면 가끔 길가로 나오는 철없는 고라니를 만날 수 있는
 산모퉁이, 물안개 가득한 호숫가에서 만나는 새벽의
 그 고즈넉함에서 느끼는 커피한잔.
 그것은 낭만이고, 자유이자 절대 고독이며,
 생각으로 사유(思惟)할 수 있는 모든 것이기에
 그 한잔의 커피를 마시기 위해 달려오는 것이다.
 현대인의 고독은 시멘트 회벽과 물질문명의 거친 소음에 있다.
 그와 같은 버거운 일상에서 벗어나, 바다가 녹아있고,
 하늘과 호수와, 숲이, 아름다운 산새소리가,
 고즈넉한 우리 옛 한옥의 정취가 다 녹아있을
 커피한잔 마실 수 있다는 즐거운 상상.
 그것이 강릉만의 커피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커피를 읽어주는 사람들. 커피문화해설사.

강릉의 문화와 예술, 신라 화랑으로까지 거슬러올라가는
강릉 고유의 차문화, 옛 첫사랑의 기억같은 안목 커피자판기와
바다, 커피산책로와 커피투어버스.

그런 것을 구수한 입담으로 전해주는 커피해설사들이 있다.

지난 2011년 초. 문화전문인력양성과정을 통해 모집된 인원들은
커피해설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고려시대부터 관아였던 강릉대도호부와
임영관지 일원의 골목과 근대문화유산들,
하슬라아트월드나 미술관 같은 현대적 아이콘들,
그리고 커피거리와 죽도봉 커피산책로까지
특화된 교육이 이어졌고, 커피거리, 커피투어버스, 커피산책로
등 특화된 공간에서 그들의 진가가 발휘되었다.
하얀 백사장에 비취빛 바다.
거기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낭만은
강릉만의 특권일 것이다.
그래서 강릉커피는 문화와 만나야 한다.
산, 들, 바다, 호수를 거쳐
미술관, 박물관, 유람선, 호수공원, 임영관과 같은
문화와 만나는 접점이 강릉커피의 깊이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 만나는 접점의 스펙트럼이 넓어질수록,
강릉커피의 맛 또한 깊이를 더하리라.
그들을 읽어주고, 맛보여주는 이들.
강릉에는 커피해설사들이 있다.

‘테마투어’로 진화하는 강릉 낭만커피 스토리포럼

커피문화가 문자 그대로 핫한 시대를 맞고 있다.

강릉으로 커피테마투어를 오는 사람들.

지난 2011년 ‘1박2일’의 연예인 이승기씨가 다녀가면서

주중에도 강릉으로 커피투어를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커피전문점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커피관광을 오는 단체관광객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 점은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커피투어 버스가 들어오는가 하면,

‘코레일 한국철도’에서 기차타고 커피투어오는 관광객까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커피나무를 직접 심어보거나, 커피 생두를 직접 볶아보거나,

볶은 커피를 직접 내려 마셔보거나 하는 커피체험.

누구나 한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재미와

생경스러움의 코드가 강릉에 있다.

그것을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KBS, MBC, SBS는 물론,

교육방송 EBS와 각종 케이블과 라디오까지

특집에서부터 다큐멘터리, 뉴스며 연예 프로그램까지 포맷을 넘나들며 강릉커피를 보도하고 있다. 커피 자체에 낭만이자 행복, 열정이자 고독, 달콤함이자 씁쓸함까지 고루 갖추고 있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커피를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커피를 문화컨텐츠로 향유하기 위한



아이템 개발 역시 게을리 할 수 없는 현실 과제이다.
 실제 강릉항 인근 카페 <산토리니>는
 커피의 눈물 더치커피로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가 하면,
 즈르마을 입구의 <크레마코스타>는 스페셜티커피 드립교실로
 커피투어 관광객들을 끌고 있다.
 경포입구 <에티오피아>는 참숯로스팅으로
 독특한 문화를 살려가다가 하면,
 강릉미술관 입구 한옥카페 <교동899>는
 한옥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특별한 카페로,
 술올지구의 <디자인노>는 핀란드 가구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가구카페로 주목받고 있다.
 카페의 진화는 필연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다.
 빈티지 카페 <파티나>, 떡 카페 <회산떡방앗간>,
 강릉의 옛 스토리를 모테로 한 스토리카페 <명주가>,
 옛 방앗간을 리모델링한 <봉봉방앗간>,
 숲속의 디자인 정원 <포레스트 테라로사>,
 옛 근대문화유산인 창고를 개조해 만든 <하슬라> 등등
 강릉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특화된 카페들이 있다.
 그 많은 카페들이 고루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특화된 프로그램,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색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마다 커피 스토리포럼을 기획한다.
지역 커피브랜드의 스토리텔링부터
다양한 커피 콘텐츠와 커피상품을 만들어내는 작업들까지
모두 전문가들의 손을 거친다.
안목의 어느 집 3층 창가 2번째 자리가
최고의 뷰(view)를 자랑한다거나,
11시 이전에 어느 카페에 가면 토스트 같은 브런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거나,
어느 카페는 4인 이상이 커피를 마시면
커피잔을 만들어갈 수 있다거나 하는
소소한 재미가 있는 이벤트.

더하여 바다마을권, 솔올지구권, 명주동 옛 도심권 등
권역별 테마투어와 특별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커피모임이나 동아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은 불문가지.
강릉에는 낭만커피 스토리포럼이 있다.



강릉에서는 커피 테마로 힐링캠프 한다!

2013 강릉 커피힐링캠프

내가 고백을 하면?

잔잔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화가 나왔다.

<카모메 식당>을 수입배급한 영화사 대표이자

<맛있는 인생>을 만든 조성규 감독이

김태우, 예지원 주연의 커피향같은 영화를 만들었다.

강릉이 주무대이기도 하기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배용준이 사랑한 한국인의 밥상 서지초가뜰,

사천향 즈음의 물회, 바다동네 커피집과 수산시장의 싱싱함까지.

강릉의 맛과 멋이

갓 담근 김치마냥 생기 넘치는 풍경으로 영상에 담겨 있다.

그 풍경마다엔 사람이 있다.

끓어 오르는 용광로처럼 아프니까 청춘인 사람들.

몸도 마음도 지친 도시인과

일상의 피로에 젖은 30대 초반의 아가씨는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백석의 시처럼 ‘나타샤와 나는 흰 당나귀를 타고’
우아하게 일상을 떠나고 싶었으나 세상은 녹록치 않았다.
그들이 강릉이라는 바다동네에서 만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낀 사람들이
‘동해바다 고래 잡으러 가자’ 고 노래하던 시절이 있었듯이,
강릉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도 하고,
상처난 가슴을 아침햇살에, 둥근 달밤에,
푸른 파도에 씻어내기 좋은 동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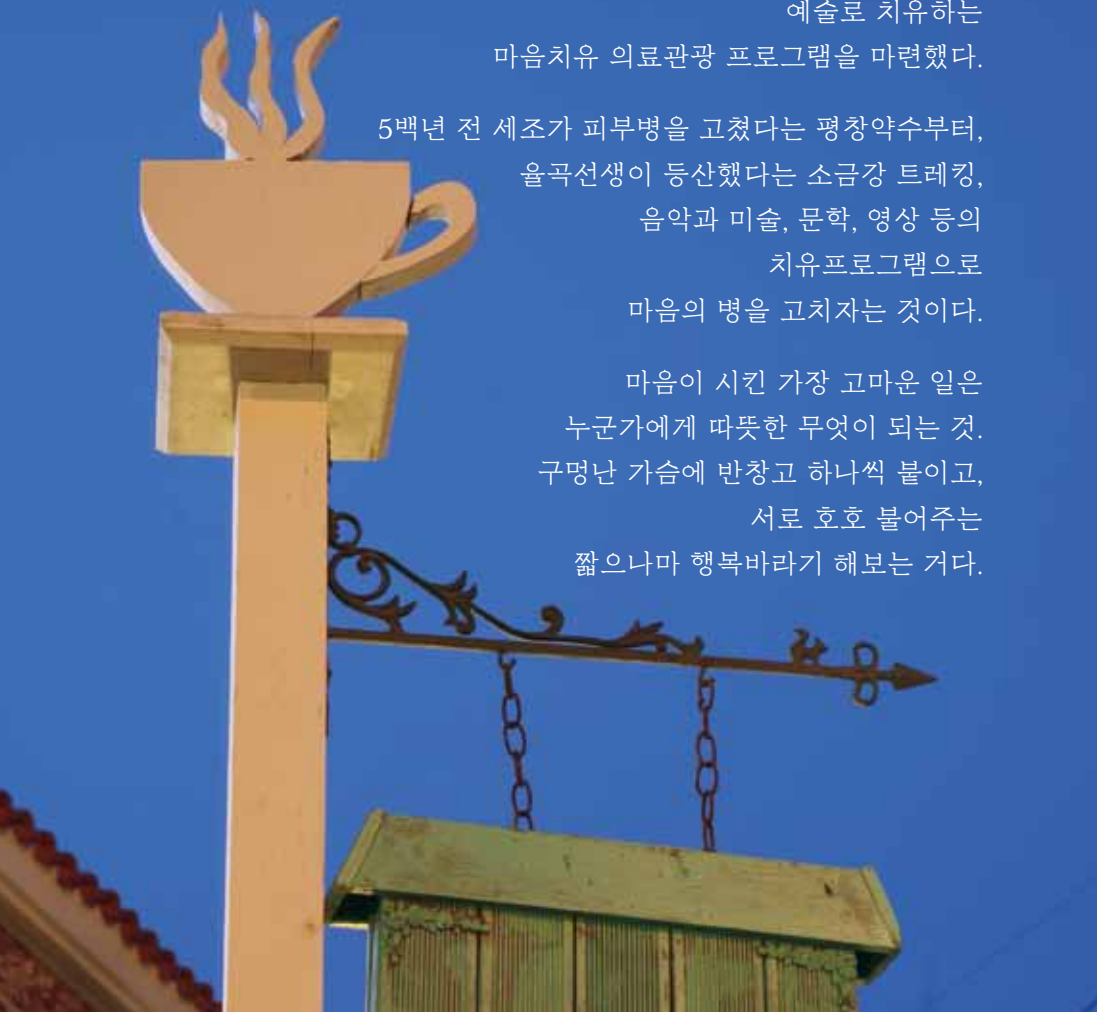
‘피로사회’, 참 가슴 아픈 표현이다.
 도심의 희뿌연 매연과 온갖 소음의 소용돌이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동해안은 육지의 끝단이자,
 고래가 사는 푸른 태평양이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지이다.
 강릉은 그래서 매력적인 동네로 표현되나 보다.

영화사와 손잡고 ‘커피힐링캠프’ 를 열기로 했다.
 영화 관람객들이 보내온 사연들은
 하나같이 구구절절 아프거나, 시리도록 아름답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거기에 마음이 있는거다.
 상처난 사람들끼리 서로 기대고
 장작불 때는 한옥집 아랫목에 등 지지며,
 푸지게 가마솥 누룽지도 먹고, 우리가락에 몸을 맡겨도 좋다.
 술바람 소리에 마음도 던져 놓아보는 힐링의 시간.
 첫 눈이 그리운 날에
 푸른 물결 넘실대는 백사장에 나를 부려 놓는다.

올해 강릉문화재단에서는
예술로 치유하는
마음치유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5백년 전 세조가 피부병을 고쳤다는 평창약수부터,
울곡선생이 등산했다는 소금강 트레킹,
음악과 미술, 문학, 영상 등의
치유프로그램으로
마음의 병을 고치자는 것이다.

마음이 시킨 가장 고마운 일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무엇이 되는 것.
구멍난 가슴에 반창고 하나씩 붙이고,
서로 호호 붙여주는
짧으나마 행복바라기 해보는 거다.



한 잔의 커피

- 용혜원

사랑이 녹고
슬픔이 녹고
마음이 녹고

온 세상이
녹아 내리면
한 잔의 커피가 된다.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마시고 나면
언제나 빈 잔이 된다.

나의 삶처럼
너의 삶처럼

커피+사람

커피향 같은 사람들



한국커피 1세대 '3박1서' 박이추.

담백하기 그지없는 입 속,
 평화 위해 장인은 오늘도 마음으로부터의 샘물을 길어 올린다.
 새벽 정안수 뜨는 달빛의 마음.
 그의 커피 애호는 차라리 기도하는 구도자의 그것과 같다.
 박이추 선생의 첫마디는 늘 '행복하십니까?' 이다.
 그렇게 삼십 여년을 커피와 함께 하신 모양이다.

한국 커피명인, 혹은 우리 커피 1세대로 통하는
 '3박 1서' 가 있다. 누구의 입에서 구전되었는지는 모르지만
 1980년대를 주름잡았던 서씨 성을 가진 '서정달' 선생,
 이후 90년대의 커피업계에 원두커피의 맛을 전파한 박씨 성을
 가진 세분, '박원준, 박상홍, 박이추' , 그 주인공.
 그 중에 현재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유일한 분이
 박이추 선생이다.

당초 제일교포로 일본에서 거주하던 박이추 선생은
목초지가 푸르른 목장에서 일하다가
불현듯 한국으로 건너오게 된다.

일본에서 커피를 배우고, 1988년 서울 혜화동에서
처음 커피집을 개업한 이후 개업 4년 만에
서울의 안암동 고대 후문으로 가게를 옮겼고,
2000년엔 아예 서울을 떠나 강원도 오대산 자락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1년 뒤엔 경포대, 다시 그 3년 뒤엔
강릉 연곡면 현재 자리로 옮겨왔다.

가게는 명성에 비해 그리 화려하지 않다. 산골의 펜션 느낌이다.
커피는 도시인들의 기호품이건만 그는 도시를 버리고
사람을 피하고 화려함을 멀리한다. 이유가 뭘까?

“바다의 포용력이 좋아서”란다. 또 선문답이다.

강릉에서 커피문화가 일찍 자리매김하게 된 동기중의 하나가
이분이 연 아카데미 때문이리라.

처음 알음알음으로 찾아오는 분들에게
하나둘씩 커피를 전수하다가 아예 강릉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바리스타아카데미 교육을 한동안 진행했다.

지금도 커피작가 황광우 대표가 진행하는 <강릉커피아카데미>에서 몇 차례 교육을 진행한다.

하지만 그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교육받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 1대1 교육을 최고로 치기에,

그의 제자는 소수이지만 오래가고, 깊이가 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에스프레소가 낫다, 핸드 드립이 낫다, 말들 많지만 중요한 건 유행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만드는 거죠.”

즉 긴 호흡으로 살아야 한다는

명쾌한 삶의 진리같은 말씀을 자연스레 전하신다.



차(茶)를 덥으며 도를 닦는 고승처럼
 묵묵히 커피의 세계로 걸어오신 선생님이 계시기에
 강릉커피는 한걸음 더 빨리, 성숙한 길을 걷게 되었을 것이다.
 강릉커피역사의 산증인이자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고 계신 명장이 계시기에 강릉커피는 든든하다.
 박이추 선생은 커피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구도자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커피는 커피다워야 하며,
 커피는 커피 그 자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실 이 말은 쉬우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말이다.
 진짜 저 말의 속뜻이 뭘까를 고민하기도 했다.
 여러 번을 뵈는 끝에 다른 말들 속에서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커피는 커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
 즉 커피를 지나치게 위대한 발명품처럼 대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다고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바라봐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커피도 차의 일종이며,
 누구나 그 따뜻한 차 한잔으로 행복해지면
 그것으로 최고의 커피라는 것이다.
 커피 한잔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풍경도, 향기도, 더하여
 인연도 덤이다.



어찌면 선생의 커피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몇 년전까지 커피는 보다 강렬한 느낌이었고,
 커피 초심자들의 경우 심한 쓴맛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아니 그것은 필자의 무지에서 오는 맛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생의 커피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시 생각나게 하는
 묘한 여운의 맛이 있다. 최근 그 맛은 더 아련해졌고,
 보다 마일드하면서, 때론 블루베리향이 감지되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감미로운 느낌이 살아난다.
 첫 눈 오는 초겨울의 어느 날.
 저물어가는 언덕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하나둘 빛을 발하는 가로등에 눈을 기대고 마시는 따스한 커피.
 그 커피엔 향기로운 마음이 있단다.
 아아. 그래서 선생은 커피집에서 자꾸 행복을 강조하신 거구나!
 뒤늦은 깨달음이다. 우리 옛말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
 만 하여라’ 했듯이 ‘더도 덜도 말고 커피맛 만큼만 하여라’
 그런 의미를 품고있는 언명이었다.
 그러하기에 커피는 반드시 박이추 선생이 직접 내려 주신다.
 손님이 계시고, 다른 일정이 있어도 반드시 커피 내리는 일만은
 직접 하신다. 그러하기에 손목에 보호대까지 차고 계신 거구나!
 월요일 하루 휴무였던 커피집이
 이젠 월, 화, 수요일 3일간이나 휴무를 한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직접 커피내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신다. 연곡 바닷가까지 본인의 커피집을
 찾아오신 손님에 대한 최상의 예우인 셈이다.
 아주 작은 커피집조차 주인장이 직접,
 그것도 영업일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커피를 내려주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선생만의 집념과 고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다.
 작은 로스팅 방에서 커피를 볶다가,
 혹은 돋보기 너머로 커피책을 들여다보다가,
 혹은 여행서적을 들여다보며 다시 보헤미안을 꿈꾸다가.
 그렇게 그의 하루는 꿈같이 흘러 갔으리라.
 저만큼 내려다보이는 바다.
 바다와 뒷산을 번갈아 보며
 보헤미안인 선생의 하루는 또 저물어갈 것이다.
 파도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거나,
 숲속의 바람소리가 언덕위의 커피집까지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날이면, 은은하게 온 동리로 커피향이 번져간다.
 거장의 손맛이 때론 바이올린 선율처럼 부드럽게,
 혹은 베토벤의 교향곡처럼 묵직하면서도
 웅장한 커피의 선율이 넘나드는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
 강릉에는 대한민국 커피 1세대가 있다.

참숯으로 콩볶는 에티오피아 심권섭 선생

커피에서 고향의 맛이 나는 까닭은?

참숯로스팅.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정성으로 숯불의 은근함.

깊이를 담은 커피.

참숯의 오랜 기다림.

인내의 불꽃에 커피를 담은 남자.

서부시대 근사한 카우보이 같기도 하고 턱수염만 봐서는
조선의 선비같은 절제된 근엄함이 배어나는 남자.

목소리조차 웅숭깊은 이.

그의 커피 한 잔에 인생이 다 녹아있는 듯 하다.

7번 국도변에서 경포로 빠지는 길목에

이정표처럼 중빨나게 서있는 커피집.

얼핏 봐서는 사막과 오아시스의 경계쯤에 있는 듯 신기하다.

하지만 딱 고만큼의 어울림.

딱 그만큼의 어색함.

그 묘한 랑데부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나보다.



그곳에 가면 하와이안 느낌의 벽화와
중세의 성주가 걸어나온 듯한 인심좋은 중절모의 사장님.
그리고 벽난로를 연상케 하는 숯불로스터기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감동인 것은,
잘익은 군밤, 혹은 군고구마 향기처럼
구수한 느낌의 스모키향이 고향의 마음을
기억 저편에서부터 끄집어 내어 준다는 것.

이효석 선생의 ‘낙엽을 태우면서’ 에 나오는
갓 볶은 커피향의 느낌은 바로 이것이라.
커피가 좋아 커피를 시작했고
안목 밤바다를 10여년 세월 넘도록 숯불로 불뻐혀 왔다.
그리고 찾아 나선 오직 그만의 공간.
너무 번다하지 않고, 수선스럽지 않으며,
한 발짝 떨어져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는 횃집과 카페거리 한복판도 아닌,
도심 네거리도 아닌,
세상의 풍경 중간쯤에 그만의 로스터리 카페를 지었다.
돌아보면 인생은 늘 쓴 커피한잔 만큼의 회한과 쓸쓸함, 고독과
낭만, 청춘과 중후함이 적절히 버무려져 있는 것이다.
과연 커피한잔에 그 많은 사연들이 모두 녹아들 수 있을까?
어느 분이랴도 의심스러우시거들랑
해질무렵 이 카페 창가에 기일게 앉아 커피아로마보다
먼저 폐부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야 마는 참숯의 진한
스모키향을 반쯤 뜯 실눈으로 기꺼이 느껴볼 일이다.

그리고 첫 모금은 쓰고,
다음 모금은 진한 승냥의 그것처럼 담백하며
마지막의 뒷 느낌은 달짝지근해지는 그리하여
냉수 한잔에 입안 가득 화한 기분이 번져 나가는 그 손톱만한
초승달부터 보름달을 거쳐 그믐달로 변해가는
달무리의 경지를 그저 한나절에 맛보는 호사를 누려 보시라.
고독과 쓸쓸함도 사랑의 또다른 이름표이려니..



커피홀릭 최근표 교수 이 남자가 사는 커피인생, 탐난다!

강원도립대학은 강릉의 바닷가를 거슬러 올라가노라면
주문진 인근에 있다. 바닷가 사이로 해송과 육송이 어우러진
신기한 동네. 바다보다 소나무가 더 탐나는 교정.

대학의 캠퍼스에 파란 잔디가 그렇게 솔솔과 어우러져
신기한 풍경을 이루어낸다. 학교는 그래서 더 빛나고,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다들 풍경이 되는 그곳.

그곳에 가면 바닷내음의 잔내와 함께

커피향이 교정 곳곳에 퍼져있음을 느낄 수 있다.

도립대학은 어느새 강릉 커피아카데미의 산실이 되었다.

위치로 볼 때 강릉시내와 사뭇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개설 즈음에는 후보까지 줄서서 기다리는

인기 상종가를 달리는 곳이다.

이 곳이 커피의 명가로 새롭게 뜨고 있는 데에는

이남자의 역할이 크다. 최근표.

그 이름 석자가 어느새 브랜드가 되어 가고 있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처음 최근표 교수를 소개받을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싱글벙글 미소를 잃지 않는 반가운 얼굴에 더하여 사교성과 적극성까지 갖춘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도립대학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국 최고의 교육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첫 만남치고 상당히 저돌적이라면 저돌적인 언명이었다. 하지만 2~3년이 지나면서 어느새 도립대학의 커피강좌는 이미 전국적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이곳에 외지인까지 배우러 오기 시작한 것이다.

커피아카데미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전국대회와 각종 컨퍼런스 등에 빠짐없이 다니시는가 하면,
 어느 틈엔가 한국의 유명 커피업계 모임에
 읍저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불쑥 작은 승합차 한 대를
 커피축제사무국 옆에다 끌어다 놓았다.
 거기에 이동식 커피축제 홍보의 장을 만들어보겠다는 것.
 일단 외부홍보안을 만들어달라고 생떼를 쓰신다.
 사무국에서도 반가운 소식이라
 두말없이 홍보랩핑을 해 드렸다.
 그리고 그 “작은 차 큰 기쁨”은 어느새 안목 커피거리를,
 시내 대학로를, 혹은 경포 호수광장을 질주하거나
 무료시음행사로 사람들의 입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이다.
 커피는 작은 한잔의, 혹은 두어 모금의 짧은 느낌이지만,
 이 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커피세상은
 실로 재미난 일상이 되고, 즐거운 상상이 되고,
 때론 향기로운 로맨스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커피축제. 혹은 커피거리. 혹은 커피명인.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이름 붙여지지 않으며,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브랜드이다.



하지만 최근표 교수는 누가 이름 붙여주지 않고,
 누가 거들어주지 않아도 어느새 새로운 아이템으로
 커피로 즐거운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올해엔 전국학생바리스타경연대회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60여개에 달하는 대학과 전문학교에서 참가,
 전국적으로 열띤 경연을 펼쳤고,
 대상을 비롯한 수상팀의 학생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이 커피로 꿈꾸는 세상.
 그 세상은 우리 모두가 커피한잔의 여유,
 혹은 커피 아로마의 달콤한 유혹과도 같은 즐거운 미래 아니겠
 는가? 최근표 교수의 새로운 내일이 기다려진다.
 또 어떤 향기로 우리의 일상을 즐겁게 수놓아 줄 것인가?
 새날의 태양처럼 새 아침의 향기가 기다려진다.

커피문화탐험가 관동대학교 손병모 교수

‘커피로스팅 창업아카데미’를 만든 분이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 주제로 잘 될까?
그것도 강릉에서?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지난해 이 아카데미는 소위 대박이었다.
저녁마다 관동대학에서는 신기한 수군거림이 있었다.
커피를 볶는 사람들.
그것으로 창업과정을 운영하는 밤기운이
캠퍼스를 커피향으로 물들였다.
그리고 올해 커피축제에서 선보인 강릉지역 브랜드커피.
사임당커피, 울곡커피, 난설헌커피 등등.
커피에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부드러우면서 살짝 향기가 서린 커피,
선비의 기상과 화랑의 기상이 담긴 커피,
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하면서도 스모키한 느낌의
커피까지 다양한 커피 블렌딩이 이뤄졌다.
관동대학교 관광학부에 손병모 교수.
친절함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손 교수는



커피축제기간 강릉 차문화의 발상지로 공군부대 안에 있는
‘한송정 우물물’을 떠다가 커피를 내리는 바지런함을 보였다.
그곳의 물맛이 차를 내리기 적합한 것은
백두대간에서 내려온 물이 지하를 타고 흘러,
바닷가까지 이르렀으니 가장 정제된 물인 것은 당연한 이치.
잔맛이 없는 깔끔함이 매력인 셈이다.
그렇게 만든 커피로 사람들의 입과 가슴을 즐겁게 해주는 일은
타고난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커피에 끊임없이 스토리를 입히는 남자.
바리스타대회 출전을 위해 밤새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선생.

새로운 커피맛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로, 대구로 뛰어다니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는 커피탐험가.

그는 대략 노(No)를 모르는 남자다.

커피와 어울리는 스낵을, 커피와 어울리는 디저트로 찰떡과 약과, 혹은 미니 쌀빵을, 칼라감자를 만들어내는 그 열정은 날마다 창조의 날이다.

밤샘 연구가 잦다보니 아예 대학 주변에 시골집을 얻어놓고, 자연의 풍광 속에 스스로를 던져놓기도 하고,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며 아이디어와 사색의 시간 보낸다는 낭만파 교수님이 그다.

학생들과 커피테마투어를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다.

커피열차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스탬프렐리와 커피콩 쌓기, 커피음악 만들기, 인간 커피게임 등 재미난 소재들이 많이 등장했다.

20대 초반의 학생들이라 게임이나, 소소한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

동영상으로 커피코믹영상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커피라면, 커피비빔밥 등 퓨전 요리들을 쏟아내기도 한다. 그들이 수개월을 고민한 흔적들은 언젠가 새로운 콘텐츠로 어딘가에서 뿌리를 내리리라.

학생들과 함께 팀티칭으로 커피를 연구하는
손병모 교수같은 분들은 사실 럭비공이다.
다음 순차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광에는 그런 모험과 프런티어정신이 필요하다.
강릉에는 커피문화탐험가도 있다.



국내 최초의 콩볶는 대회 「로스팅어워드」 심은 남자! 월간 “커피앤티” 편집국장 지영구

제3회 커피축제를 강릉문화재단에서 새로이 맡으면서 시작된 새로운 길찾기. 기존 커피축제와 다른 지층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한국 커피업계의 동향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커피잡지의 양대 산맥을 만드는 두분을 차례로 방문했다. <월간 커피>의 홍성대 대표님과 <월간 커피&티>의 지영구 편집국장님을 찾아 뵙고 자문을 구했다. 회사 분위기가 다른 만큼 두 분이 지향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느껴졌다. 좀 더 시스템화 된, 체계적이면서도 정제된 분위기가 <월간커피> 이미지라면, <커피앤티>는 입구부터 회사 내부까지 자유분방함이 넘치며, 좀 더 소탈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였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깔끔한 드레스 셔츠에 산뜻한 넥타이가 더없이 잘 어울리는 홍성대 대표님과 덩수룩한 머리에 편안한 반팔셔츠차림의 지영구 국장님의 분위기가 대조적이듯 회사 분위기도 딱 그만큼의 차이가 느껴졌다.



첫 대면부터 <월간커피> 홍대표님께서
 현재의 커피산업과 동향을 짚으시며,
 강릉커피의 늦은 출발을 우려하셨다. 정확한 진단이었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진 않으셨지만,
 목표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코멘트해 주셨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다.

<커피엔티>에서는 오히려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는 편이었다.
 또한 지역 커피축제의 산업화보다는
 자유롭게 즐기는 축제를 권해 주셨다.

두분 말씀 모두 정확한 지적이었고, 안성맞춤의 코멘트였다.
 그리고 얼마 후, 지영구 국장님이 강릉의 바닷가에 계시다는
 전갈이 왔다. 주말이었고 편안한 시간이었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에서부터, 커피산지와 주소비층인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스페셜커피업계의 동향까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두서없이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두서없는 말들 같았지만 하나같이 중요한 테제였다.
 한나절이 금방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다.
 해넘이가 끝나고, 달이 불을 켤 때까지
 다양한 주제의 커피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그렇게 제3회 커피축제의 테마 중 하나인
 “강릉바리스타어워드”가 탄생하게 된다.
 전시회와 바리스타대회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공간과 예산,
 사람 모두 부족했기에 다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 숙고하지만
 일단 결정되고 나면, 밀고나가는 성격이기에
 첫 번째 바리스타대회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첫 대회인 만큼 많은 팀들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전년도 전국 바리스타대회 우승자 등이 참가하여
 라떼아트 시연을 보이려는가 하면, 대회 참가자들이

다양한 테크닉을 선보여 큰 박수들을 받았다.

제4회 강릉커피축제에서는 국내 최초의 커피콩 볶는 대회
“2012골든커피어워드”가 개최되었다.

‘골든커피어워드’란 문자 그대로 최고의 커피콩을 뽑는 대회
이다. 대한민국 유명 로스터들의 잔치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1)에스프레소부문 2)밀크베이스부문 3)하우스블랜드부문
4)싱글 오리진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커피콩을 볶는 잔치를 만들어낸 것도 역시 지영구 국장이었다.
국내 50여개 유명 커피로스터들이 모였고,
100여개 로스터리 샵들이 참여했다.

대한민국에서 “커피가 맛있는 집”이라는 상패를 얻게 된
수상자들은 환호했고, 2012년은 그래서 더 특별한 한 해였다.

작은 예산과 인원, 공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외길을 걸어주신
국장님의 땀방울에 거듭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그렇게 강릉커피축제는 여러분의 열정이 보태져서 만들어지는
축제이다. 특히 지영구 국장님의 특별한 강릉사랑과 커피홀릭이
새로운 커피문화로 한 단계 진화할 수 있게 해준 셈이다.

이 지면을 빌어 거듭 감사의 인사드린다.

“커피가 산으로 간 까닭은?” 산사에서 커피 볶는 현종 스님

“부처님이 그 시절 차를 드셨듯이 요즘 시대에
석가모니께서 계셨더라면 틀림없이 커피를 드셨을 겁니다.”

강릉에는 커피 볶는 사찰도 있다.

참 신통방통한 일이다.

연곡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는

제철을 만나면 그 양이 상당하다.

황어도 많아 강태공들이 세월을 낚기에 좋은 곳이다.

연곡천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

오대산 허리춤을 만나게 된다.

너럭바위도 만나고, 저수지도 만나고,

‘송림리’ 라고 소나무 마을도 만나지며,

산세가 좋아 산자락마다 포근하게 싸여져 있는

포란(抱卵)형 절집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그 한참 안쪽에 아담하면서 아기자기한 사찰

‘현덕사’가 그 주인공이다.

민들레에 인동초, 진달래에 가을 국화, 겨울 눈꽃까지 치면
절집은 사찰 꽃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진달래가 천지를 핑크빛으로 물들일 때 즈음이나,
인동초가 푸지게 늘어지는 날들이거나 그런 날들이면
신이 내린 축복이란 느낌이 충만해 진다.

사실 풍수지리를 모르는 사람도 이 절집을 만나면

‘이곳이 명당이구나!’ 하는 느낌을 절로 받는다.

꼬부랑 산길을 돌고 돌아 오르다보면 제일 안쪽 아담하면서
예쁘장한 절집이 있는데 획 돌아서면 구만리를 내다보는 듯
탁 트인 전망에 살짝 놀란다.

절집의 풍경소리마저 잠든 오후 3시.

어디선가 ‘가르랑 가르랑’ 신기한 소리를 낸다.

한 쪽에선 프라이팬에 커피를 볶고 있고,

옆에서는 볶은 콩을 ‘맷소사’ 맷돌에다 갈고 계신
스님이 한 눈에 들어온다.

그래, 어쩌면 깨달음이란 저런 것인지도 모른다.

커피는 전기 스토브에도, 가스에도, 숯불에도

구울 수 있는 것이다.

분쇄하는 것도 꼭 정형화된 그래인더가 필요하겠는가?
 에티오피아 원주민들은
 지금도 그냥 냄비에 쏟아 부어 통째 마시는데 말이다.
 절구든, 맷돌이든, 도리깨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나만의 커피를 즐긴다면
 거기에 행복이 스며있는 것 아니겠는가?
 원래 현종 주지스님은 남다른 데가 있는 분이다.
 현덕사에서는 신기하게도 미물이라고 치부하는
 ‘동식물천도재’ 를 지낸다.
 작은 풀 한 포기, 말 못하는 동물 한 마리라도
 일년에 한 번 쯤이라도 감사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그 생명이 다음 생엔 더 귀하게 쓰이도록
 천도재를 지내주는 분이다.
 생명 평화사상, 자연주의, 스님의 넉넉한 마음이
 따스하게 느껴진다.
 천성이 순박하고 고요한 성정의 스님,
 그 분이 차와 커피를 넘나들 수 있었던 것은 문자 그대로
 ‘일체유심조(一切維心造)’ 아니겠는가?
 달 밝은 밤에, 산 그림자도 까뻍 조을 때,
 부드럽고 연한 커피한잔에 세상 근심 다 녹아내린다.



일본 커피명인 '나리타 센조'의 조언 지역의 전통문화에서 답을 찾으라!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에는 오래된 커피역사가 있다.

200여년 전 무사커피.

객지 전쟁터에서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
온 몸을 덥혀주는 따끈한 커피 한잔.

그 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영혼까지 건져 올려주는 최고의 영양이었던 것이다.

그 곳 아오모리에서 25살부터 시작한 커피.

38년간 커피를 부여잡고 살아오셨다고 하니

그야말로 커피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분이다.

나리타 센조 선생은 아오모리 커피의 산 증인이자

일본 커피역사의 한 획을,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짧은 머리에 단호한 어조,

나이의 흔적을 가늠하기 어려운 열정적인 움직임.

무사커피를 사랑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

그가 생각하는 커피는 어떤 모습일까?

커피를 우리네가 살아가는 집에 비유한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전통가옥인 한옥의 기둥처럼
굵고 웅장한 기를 다스리는
독자적이고도 특별한 뿌리의 힘이 있단다.
그 뿌리를 튼실하게 가꾸는 것이 일종의 정신이란다.
그 정신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정신이 담긴 커피란 우직한 전통의 지킴이와
새로운 창조의 정신에서 나온다.
무사커피는 차를 우려 마시는 방식과 유사하다.
프라이팬을 달궈 커피를 검붉게 볶은 후
돌절구에 적당히 갈아낸다.
잘 갈린 커피를 삼베 주머니에 넣고
차기(茶器)라는 차 주전자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내는 것이 무사커피이다.
커피를 우려내는데 쓰는 도구들과 재료들도 중요하다.
커피를 우릴 때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근방 1km 이내에서 솟는 물을 쓴다.
소위 로컬푸드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수고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이 전해오기까지
수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노동이
우리가 커피를 마시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실제 커피한잔을 내게 전해주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 하나하나의 정성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동네에서 향기로운 커피를 맛보고 있는 것이다.
 커피 거리, 커피 문화, 한 시절의 바람처럼
 스쳐지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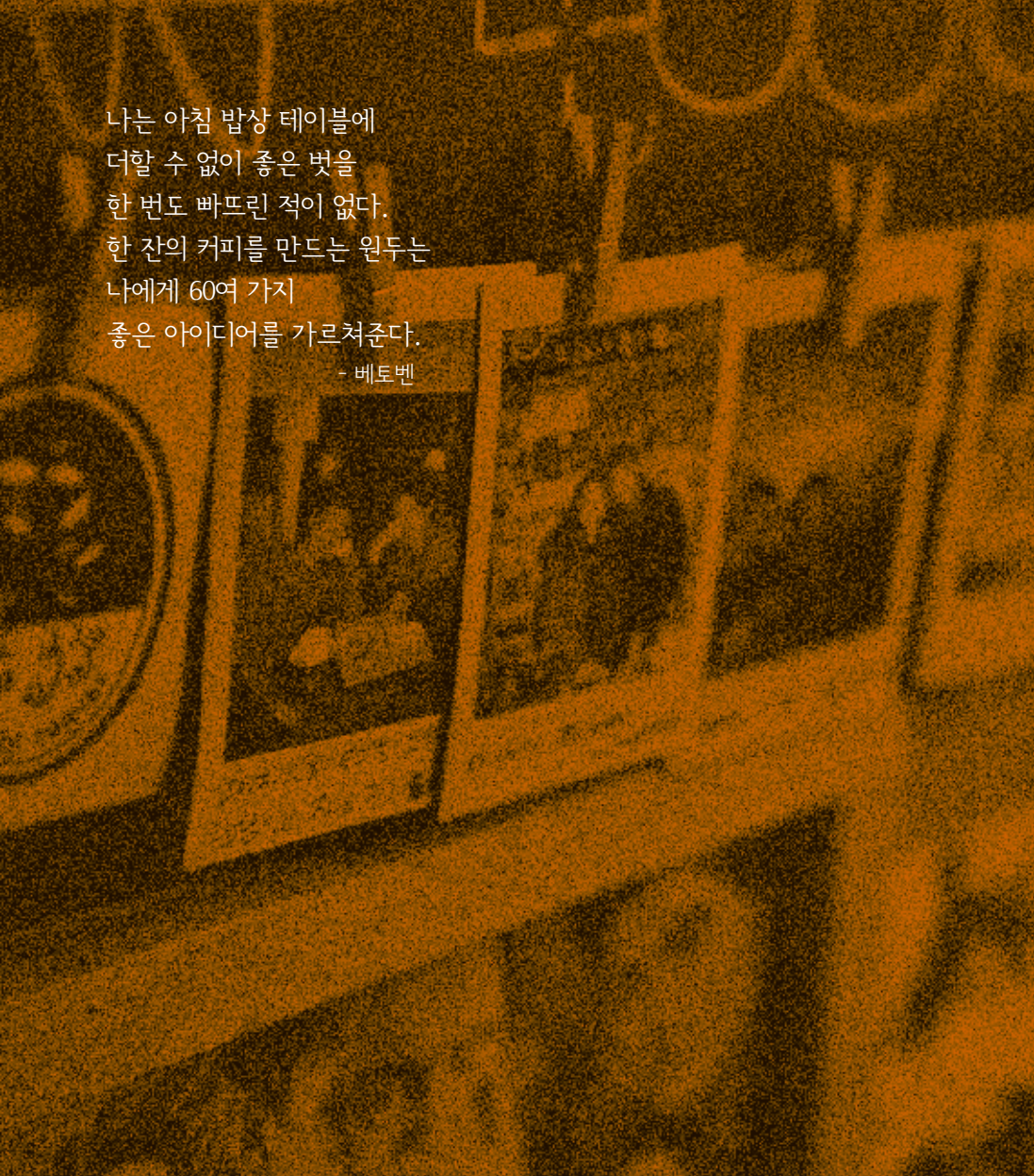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온다는 것에 놀란다.
 강릉의 로컬푸드도 반드시 지역성, 전통성을 찾아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히로사키 현지에도 오래도록 성장 가능한 지역 음식을
 찾아내기 위해 오랜 세월 노력해 왔다.

긴 세월 커피를 마시면서 쓴 커피에 맞는 음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거기에 안성맞춤인 화과자를 찾아냈다.
 그 화과자 안에 있는 단팥 고물의 달짝지근한 맛은
 쓴 커피와 환상적인 궁합이었다.

커피도 음식이다.

맛있는 밥에는 반드시 정성이 깃들어야 한다.
 최고의 커피 맛은 최고의 정성이 깃들었을 때 우러나온다.
 또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사람과 함께 일 때
 행복한 커피 맛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photograph of a wall. On the left, there is a circular emblem or logo. To its right, a row of several framed pictures or posters is displayed on the wall. The entire image has a grainy, high-contrast, yellowish-brown color scheme.

나는 아침 밥상 테이블에
더할 수 없이 좋은 벗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
한 잔의 커피를 만드는 원두는
나에게 60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르쳐준다.

- 베토벤

커피+명소

그 곳만의 특별함

국내 최초 스페셜 커피 강릉엔 커피공장이 있다!

2002년 테라로사가 강릉 구정면 숲속에 동지를 틀었을때
다들 반신반의했다.

은행가 출신의 김용덕 대표가 찾아 가기도 어려운
백두대간 등줄기 칠성산 가까이,
그것도 숲속에 커피집을 차렸다고 했을 때,
혀를 차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테라로사.

커피가 자리기 적합한 검붉은 석화암이 풍화되고
남은 토양으로 습윤기후의 라테라이트(Laterite) 토양과 비슷한 지대.
그가 건져올린 이름만큼이나 혁신적인 선택이었다.
처음 그곳에 커피자루가 쌓인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도 생경스러웠지만
그 다음해인가 어느 토요일 저녁.
그곳에서 숲속 작은 음악회를 연다고 부산해 했었다.



강릉예총 심규만 국장이 지인들을 불러모아 시작한 작은 음악회.
초여름밤의 음악소리는 스멀스멀 사람들 입을 타고 흘러 다녔고,
테라로사 커피향은 그보다 더 빠르고 분주하게 번져 나갔다.

테라로사의 커피맛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다.

잘 차려입은 신사의 향기 같기도 하고,

소녀시대의 현란한 춤사위 같기도 하고,

때로 여름날 야외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마실 땀

플레어스커트 나폴거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같은

싱그러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전문 커피들의 표현대로 레몬향이나 재스민,

베르가못 같은 허브향이 느껴지는가 하면,

때로 사탕수수의 단맛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 오리지널 커피들은 분명 사람들을 당혹케 한다.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구분해내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테라로사의 커피는

뭔가 특별하다고 입을 모은다.

꽃향기를 구분해내기는 어려울지라도

커피를 마시다보면 살아있는 커피,

생동감 넘치는 커피맛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커피 한 모금을 입안에 천천히 넣었을 때,

의도하지 않더라도 커피가 스르르 혀를 휘감아 돈다는 사실이다.

살아 움직이는 커피. 새콤함과 달콤함,
 쓴맛과 단맛이 두루 어우러지는 신기한 경지를
 운이 좋다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 스페셜티업계의 좌장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김용덕 대표. 그는 평소 입버릇처럼 와인의 소믈리에처럼
 전문 커피(Cupper, 커피원두의 맛과 품질을 감정하는 사람. 원래
 taster로 쓰였는데 현재는 커피가 일반화됨)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리하여 좋은 포도산지를 가려내는
 토양, 강수량, 태양, 바람, 경사와 배수 등을 통칭하는
 ‘테루아(terroir)’ 처럼 좋은 커피산지를 찾아
 최상의 커피를 찾아내야 한다는 지론이
 현실화되어 가는 셈이다.

미국 스페셜티를 이끄는 인텔리젠시아의 제프 와츠,
 스템프타운의 듀안 소렌슨, 카운터 컬처의 피터 줄리아노,
 김용덕 대표가 줄줄 읊어대는 그들은
 세계 고급커피시장의 선구자 내지 블루칩으로 통한다.
 거기에 일본 스페셜티업계의 대부 히데타카 하야시,
 그리고 ‘마루야마’ 커피의 겐따로 마루야마 등이 반열에 든다.
 그리고 한국엔 강릉의 김용덕 대표가 있다.
 실제로 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대부분 이곳 테라로사를 방문해



커피맛을 보고 간다고 한다.

실제 테라로사 커피는 특별함이 있지만
그 맛에 못지 않은 것이 빼어난 공간미학이다.

하얀 자작나무 옆에

붉은 요염함의 테라로사 입간판부터 걸작이다.

회벽을 지나는 회랑같은 느낌의 공간을 돌아 들어가면
작은 나무문이 나오고, 그 안에 혼돈 속의 질서와도 같은
카페 공간이 나온다. 로스팅공장이 최근 새로 지어졌고,
안쪽으로 밤나무밭 곁엔 오후의 흥차를 즐기기에
최상의 장소일 것 같은 영국의 어느 테라스에 앉아 있는 듯
착각이 드는 자연공간이 있다.

로스팅공장과 카페 사이에 증정은 또 어떠한가?

잘 생긴 커피나무가 마치 떡갈나무처럼 잎사귀를 드리우고 있고,
원목으로 잘 다듬어진 기둥과 서까래 위에
살짝 펄럭이는 하얀 휘장은

인도 바라나시의 어디쯤에 와 있는 듯 착각이 인다.

김 대표의 건축미학 심미안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공간미학에서 디자인, 그리고 타고난 사업감각까지

<테라로사>는 한국 커피산업의 종합 선물세트 같은 곳이다.

강릉에는 국내 최초의 커피공장 <테라로사>가 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오케스트라처럼 연주하는 김용덕 대표가 있다.

대한민국 최고령 커피나무가 자라는 곳 대관령 자락 커피농장

강릉에는 한국커피 키우는 커피농장이 있다!
강릉시 왕산면 대관령자락에는 커피나무가 자란다.
그곳의 봄은 아지랑이처럼 더디게만 오고,
겨울은 미처 낙엽이 마지막 잎새 떨구기도 전에
성급하게 눈 산 만들어 놓는다.
한 여름에도 새벽 안개가 온 산하를 휘감아 놓는가 하면,
가을은 홍조를 띤 소녀의 얼굴마냥 석양 노을빛으로
붉디 붉게 달아 오른다.
희뿌연 아침마다 계절의 안개를 가슴 가득 쓸어 담는 사람들.
거기에 왕산 커피 농장 식구들이 있다.

커피향따라 커피꽃이 피어나는 곳 봄과 여름사이.
그 싱그러운 계절에 이제 왕산골에서는
커피 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2만여 그루의 커피나무가 자라는 커피농장.
농장을 운영하는 이들 부부는 타고난 사업가이거나
트랜드 세터임에 분명하다.

최근에는 해마다 5월에서 7월사이,
 왕산 커피농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이름하여 커피나무축제. 이미 커피축제가 강릉의 대표적인
 창조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즈음,
 커피나무로도 축제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만난 것이다.
 커피나무축제는 무엇을 할까?
 궁금해진 사람들이 왕산으로 많이 모여 들었다.
 직접 농장을 둘러보다가 커피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붉은 체리열매들을 보니 탄성이 절로 인다.
 커피나무에서 커피를 직접 수확하는 행사.
 사람들이 저마다 작은 바구니 하나씩을 들고
 커피나무에서 제각각 커피를 따느라 여념이 없다.
 그 수확한 커피를 들고 행사장 앞으로 가서
 대형 함지박에 체리를 버기는 체험도 한다.
 그리고 그 커피열매의 속씨앗이 커피 생두인 셈인데,
 생두를 가지고 커피를 직접 볶아보고,
 볶은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까지 한 번에 다 이뤄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강릉에서 이 같은 경험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유레카’를 외칠만 하지 않은가?
 안개가 벗어낸 이슬을 먹고 크는 커피나무.
 방금 싹을 틔운 갓난쟁이부터 국내 최고령 25년생 나무까지
 몇 세대 공존의 삶이 진행 중이다.



새파란 나뭇잎 사이로 저토록 검붉은 유혹을 잉태 할 수 있을까?
 악마의 유혹이거나 금단의 열매이거나
 더 없이 아름다웠기에 생겨난 이름 아니겠는가?
 강릉에 커피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모두가 반신반의 했고, 다들 그 사업만큼은 만류했지만
 김 대표의 뜻심은 단단하고 아물었다.
 민들레 한 대궁도 수천 번을 흔들려야 피어난다 했던가?
 커피나무를 열려 죽인 겨울이면 시퍼런 하늘 쳐다보며
 눈물 삼켜야 했고, 작은 모종판에 씨앗 발아 성공했을 때는
 떨듯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즐거워 했다.
 보통 낮게는 7백미터에서 높게는 2천미터 이상에서 자라는
 커피나무의 특성을 간파하고, 이를 우리 땅에 접목한 것이
 달밤의 박꽃처럼 하얀 커피꽃을 만나게 해 준 것이다.
 그리곤 마침내 커피농장이라는 당당한 이름표를 얻게 되었다.
 열정의 마력은 날씨도, 다른 환경도, 자본도
 결코 이겨낼 수 없는 특별함을 일궈낸 것이다.
 커피농장을 일군 사람들은 의외로 소박한 마음에 첫 삽을 떴다.
 10여년 전, 안목 강릉항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커피향에 취해 있었다.
 바다만큼 낭만적이고 자유를 만끽하기 좋은 곳도 드물다.
 하지만 그 만큼 고독과 쓸쓸함도 덩으로 온다.

바쁜 일상에 탈출의 한 쪽이 바다였다면 다른 한편은

‘깊은 산속 옹달샘’ 이었다.

깊은 산을 찾아 가자니 자연스레 대관령 동지를 찾게 됐단다.

산의 품이 좋고 넉넉해 찾아든 이 곳.

백두대간 등줄기는 첩첩산중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앞으로는 작고 아담한 계곡이다.

때론 거칠게, 때론 투박하고 푹푹하게,

그리고 때론 간지러운 웃음소리처럼 여리게 흐르는 물소리.

사람의 성정도 저 자연의 사계절 넘나들이가 있어

그토록 굴곡이 지나보다.

거기서 10년 세월 커피나무를 심은 덕분에

이젠 제법 농장의 품새를 갖췄고,

도심 속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땀은 정직하고, 더운 고난 뒤에는 열매가 열리기 마련이다.

김준영 사장과 두 부부는 이곳에서 다른 듯 하면서

뉘어가고 있다. 말수가 적은 김준영 사장은 묵묵한 조력자다.

경영자이지만 때론 목수로, 때론 디자이너로,

때론 농부로 삽과 망치를 들고 산다.

사려깊은 성정을 지녔기에 오래도록 생각하고,

결정되면 불도저처럼 밀고나간다.

그의 손길이 지나가고 나면, 작은 공연장이 만들어지거나,

박물관 전시실이, 혹은 카페에 새로운 공간이 푹뚝 생겨난다.

그것이 그의 매력 포인트이다.

부인 최금정씨는 여장부다.

왕산부터 안목을 거쳐 정동까지 6호점까지 나가 있는 직영점을
동분서주한다. 그는 직원들과 언니처럼 지낸다.

요란한듯 하면서도 각 지점별로 작은 일까지

꼼꼼히 챙기고 관리한다. 직원 개개인들과 소통하고 있기에
네트워크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기획실장이자 박물관 학예실장으로 헌신하는
심지은씨는 팔색조 미인이다.

커피연구에 몰두하는가 하면 멋진 홍보카피를 만들기도 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박물관 해설도 멋들어지게 해낸다.

한 식구처럼 일하는 사람들.

한 식구처럼 일하는 기업이기에 성장은 가속도가 붙고,
하루종일 발이 부르뜨도록 뛰어다니다가

시원한 맥주한잔에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이리라.

그렇게 농장 식구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이 모여
올해엔 200kg이 넘는 커피를 수확했다.

아직 눈이 채 녹지 않은 초 봄. 더 없이 하이얀 순백의 절정,
커피 꽃들이 그윽하더니,

한 여름 청포도처럼 커피체리가 주렁주렁 열린 것이다.

강릉엔 땀으로 일군 커피 농장이 있다.

세계6번째 커피박물관 강릉에 있네!

커피투어와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

커피박물관. 전 세계를 통틀어 6번째 커피박물관이라 하니 그 가치도 상당하다. 커피문화의 종주국 터키쉬 유물들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등의 초창기 커피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물들이 상당수 있다.

투박하지만 클래식한 빨간색 테이블형 그라인더는 아마도 서부시대 황금광을 찾으러가는 미국인들의 전유물이었을 법하다.



카우보이 모자에 시가를 물고, 긴 망토를 휘날리며
 벌판의 어딘가에 있는 카페테리아에 들러 가족장화 신은채
 저벅저벅 들어가 급하게 내린 커피 한잔 목을 축이고
 떠났을 것이다. 영국이나 오스트리아의 귀족들이 썼을 법한
 벽걸이형 그라인더는 또 어떠한가?
 클래식한 문양이 아로새겨져 있고,
 왕실이나 가문의 문장인 듯한 모양새며 거기에 스며있는
 오래된 청동의 고풍스러움은 한층 중량감을 느끼게 한다.
 에티오피아나 예멘의 원주민들이 썼을 법한
 손으로 밀어서 만드는 나무그라인더와 냄비,
 주전자는 처음 수피교도들이 점성술처럼 커피로 점을 치고,
 주술을 외울 때 사용했을 법한 모양 그대로를 지니고 있다.
 투박하게 다듬은 밀통과 양증맞은 홍두깨 모양의
 윗몸이 맞닿은 곳에 콩을 넣고 갈았던 흔적들.
 그냥 커피를 텀병 집어넣고 끓여 후루룩 마셨던
 주전자와 냄비그릇들. 그것이 머나먼 인도양을 지나
 이곳 강릉 대관령자락까지 와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그렇게 강릉에는 동서양 커피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커피박물관도 있다.

옛 도심의 화려함을 흑백사진처럼 돌려보는 곳 명주사랑채와 작은 도서관

문화작은도서관. 서부시장의 끝단에 있는 이곳은
과거 인근에 문화원도 있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었다.
그 자리가 다시 ‘문화의 집’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었다.
이곳이 지난해까지 커피전문도서관이었다.
커피전문도서관? 사면이 전부 커피책으로 진열되어 있고,
아랫칸에는 커피기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핸드밀과 드립용기들, 그리고 소소한 기물들.
그곳에서 자주 커피교실이 열렸고,
문화단체 사람들이 모여 커피를 배우고, 커피를 나누고 했다.
그리고 인근 옛 시청건물 맞은편 남대천 방향 골목에
새로 동지를 튼 “명주사랑채”
커피를 볶아보고, 내려보는 작고 아담한 공간이 생겼다.
명주동 마을의 새로운 문화놀이터.
사랑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작고 양증맞은 규모다.
이층에는 서가가 있어 커피책들과 예술관련 서적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마중한다.



가을날. 그곳 이층에서 내려다보이는
 소담스런 이웃의 기와집들. 그리고 창가에 풍경처럼
 가지를 드리운 감나무. 거기에 빠알간 홍시 몇 알이
 그토록 예쁘게 보일 줄 몰랐다.

더러 지나는 행인들이 그 감을 따려고 애를 써서
 아예 대나무 장대를 갖춰 놓았다. 더러는 따고, 더러는 떨어지고,
 그리고 더러는 여전히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세월바라기를 하고
 있고. 사람살이도 대략 그러하지 않겠는가?

누군가에 의해 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뒤편치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매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도 자연의 섭리 속에 함께 있는 것이리라.

강릉에는 감나무와 홍시를 풍경으로 삼은 커피사랑방이 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써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향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 나짐 히크메크, <진정한 여행> 중에서

커피+축제

커피는 축제다

커피는 황홀한 축제다! 바다를 품은 커피 제1회 강릉커피축제

커피를 축제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강릉이라는 전통문화도시에서? 다들 반신반의했다.

어떤 이들은 ‘1억과 1천만원의 차이’를 빗대어

차인연합회 지원금과 커피축제의 차이를 꼬집기도 했다.

사실 강릉만큼 일찍부터 다도인들이 성황을 이룬 곳도 없다.

여전히 차인연합회와 각 다도회에서는 사임당헌다례,

난설헌 헌다례, 범일국사 다례재, 한송정 들차회,

울곡제 들차회 등 각종 축제장을 한복과 다도, 다화, 다식으로

꽃물들인다. 그런 곳에서 커피축제를?

그런데 사실 커피와 차는 같은 동네다. 같은 차 문화인 것이다

어느 날 최명희 시장님이 서류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구겨진 신문이 빠져나왔고,

‘커피가 강릉으로 간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테라로사, 보헤미안, 언덕위의 바다를 엮어 특집으로 다룬

중앙일보 주말판 기사였다. ‘이 걸로 뭔가 좀 만들어 보지.’

그래서 잉태한 것이 강릉커피축제이다.

강릉에서
새로운 향기를 만나다

2009년 가을, 강릉에서 새로운 커피문화를 만나다

2009강릉커피축제

기간: 2009년 10월 23일 - 11월 8일

장소: 강릉시에서 최경훈인 로스질 커피숍과 한복재관, 시면제2에서 열람, 42

주최: 강릉시 주관, GTB(강원민방) 후원, 강원민방 사업기획팀 033 248 5018



커피아카데미와 카페촌, 커피명인과 커피공장 등이 모두 성황중이어서 이미 커피문화가 무르익어가고 있으므로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당시 강릉시청 공보담당관실의 서동구 계장, 안정철 디자인전문가는 최고의 궁합이었다.

커피축제를 추진해도 좋다는 내부합의가 이뤄지자 일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홍보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당시 GTB(지금의 G1)강원민방 영동본부 김형기 본부장이 적극 뛰어 들었다.

모두들 커피축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향후 5년내 커피축제가 자리잡아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런데 극심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다름 아닌 AI 바이러스였다.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조류인플루엔자에
국내도 예외는 아니었다.
8월말,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공문으로 1만 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 및 축제를 불허할 것을 통보했다.



축제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다들 상심에 빠져 있을 때 순간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그때 착안한 것이 분산형 축제인 것.

1만 명이 모이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즉석 관련 분과 회의가 이뤄졌고, 각 공간별, 카페별,
거리별 커피이벤트를 하겠노라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일사천리로 다시 커피축제가 준비됐고

마침내 제1회 커피축제가 탄생할 수 있었다.

“2009년 가을, 강릉에서 새로운 향기를 만난다” 를 주제로
막이 올랐다.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강릉의 로스터리 카페와 안목,
사천해변에서 주요 행사들이 펼쳐졌다.

안목 강릉항 일대가 극심한 교통정체로 일대 소란이 빚어졌고,
무료 커피체험에 익숙치 않은 카페 대표님들이
축제 행사장에 항의하는 촌극이 벌어지는가 하면,

생경스러운 커피축제라는 주제에 시민이며

관광객들, 타 문화단체나 기관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강릉항은 강릉시내권에서 바다쪽으로 거의 끝물에 해당한다.

땅끝같은 이미지가 강릉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것이다.

거기 땅끝마을 같은 곳에 커피라니?

다들 과거의 자판기를 떠올리는 사람,
남대천과 남향진향이 만나는 곳에서 송어낚시를 하며 마셨던
외딴동네 커피한잔의 맛을 떠올리며 입맛다시는 사람,
군부대 소초가 있어 그곳에 근무무하던 젊은 시절,
저녁나절 마시는 한잔의 따끈함을 떠올리는 사람,
첫사랑과 그곳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이별했다며
아스라이 사라지는 상념을 떠올리는 사람까지 각양각색이었다.
그렇게 강릉커피축제는 막을 올랐고,
전국 최초의 커피축제로 이름표를 달게 되었다.
커피는 축제다!

강릉에서
새로운 향기를 만나다

"2009년 가을, 강릉에서 새로운 커피문화를 만납니다"



제3회 강릉커피축제 Story

커피축제를 통해 본 지역문화의 창조적 힘
커피와 전통차 만남처럼 새롭게, 함께, 신나게

바야흐로 문화의 세기에 접어들면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깊이에의 강요’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삶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보고, 현재의 우리를 가늠해보는
‘함양’과 ‘체찰’의 언저리까지는 가야 할진대 모두들 삶의
첻바퀴를 핑계삼아 되돌아보는 일에 참 게으른 편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쩌면 오래도록 변치않는
사진 한 장의 추억이나 명상보다,
찰라마다 변하는 영상문화에 익숙하고,
인스턴트문화에 더 쉽게 반응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커피. 분명 요즘말로 뜨거운 아이템임에 분명하다.
강릉커피축제. 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최하는
유일한 커피축제가이기에 관심과 애정,
격려와 채찍이 두루 넘쳐났다.
축제는 즐겁고, 평가는 늘 차갑고 냉혹하다.

(그러해야 다음해를 준비하는 동력들이 생겨날 터이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예산에, 축제의 장은 세배로 늘어났지만,
 그것보다 더 나를 옥죄는 것은 기실 깊이에의 강요였다.
 적어도 모든 것 놓아두고
 쉽게 그냥 즐기는 축제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커피축제를 접하는 관광객들과 지역민들 모두
 ‘왜 강릉인가’ 와 ‘왜 커피인가’ 에 궁금증을 쏟아놓는다.
 출발점은 거기에서부터였다.
 신라 화랑들이 차를 달여마셨다는 기록이 전하는 강릉 한송정.
 신라시대 유일의 차문화유적지가 강릉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놀란다.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 가락국에 시집오면서
 가져왔다는 차문화가 어찌하여 강릉에서 꽃피게 되었을까?
 전국 어딜가도 명산대천은 있으되 신라 화랑들의 눈길을 끈
 그 무엇인가가 강릉에는 있었다는 것이다.
 신령스러운 산 대관령, 오대산 불교문화의 잉태지,
 호수와 바다를 함께 내려다보는 경포 벽옥대.
 그 모든 것들이 강릉을 신라화랑들의 성지로 만들었으리라.
 그러나 무엇보다 손꼽히는 것은 물맛이 아닐까 싶다.
 지역마다 물맛이 다르긴 하겠지만,

잔 맛이 없으면서도 좋은 물맛이 나기란 쉽지 않다.
 초정리 광천수나 양양 오색약수 같은 좋은 물이 있지만
 차를 끓여 마실 때 본연의 차맛을 내기는 어렵다.
 우통수의 기질을 지닌 강릉의 물은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오며 무거운 것,
 안고있는 내용물들을 돌틈 사이에 두고 내려와서인지
 물맛이 청아하면서 정갈하고 깔끔하다.
 대관령 아랫자락에 소주공장이 자리잡은 연유도
 같은 내력인 것이다.
 한송정 들차회와 강릉커피의 연관성은?
 바로 물과 차의 만남이라는 데 있다.
 강릉은 일찍부터 화랑과 선사(禪師)들이 많았거니와,
 물맛이 남달랐기에 차문화가 풍성하게 꽃필 수 있었다.

한송정 새벽 물 길어 경포대에서 커피축제 개막을 알린다.
 천년 전 삼한시대 선인들이 차를 받아들였듯이,
 20세기의 터널을 빠져나오며 강릉은 커피문화를 받아 안았다.
 한송정과 함께 또 하나의 차문화 유적지인 경포대.
 그곳에서 커피축제 개막을 알리는 누정음악회가 열렸다.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갓 볶은 커피콩을 갈며 즐거워 하셨다.
 사무국의 정수진 팀장님이 그날 새벽 한송정에서
 직접 정안수를 길어 온 수고 덕분에
 역사 속의 샘물로 커피가 내려졌다.
 커피를 내린 분은 한국 원두커피 1세대 거장으로 불리시는
 박이추 선생님이셨다. 특별한 분의 특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어진 국악과 관현악의 어울림 또한
 고전과 현대문화의 만남이었다.
 경포대 정자각 옆에서 열린 누정음악회.
 새로운 시도였고 분위기도 참 좋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네 정자문화가 아름다운 만큼,
 국악과 관현악의 선율이 밤하늘을 수놓을 때,
 병풍이 되어주는 소나무의 운치만큼이나 가을밤이 풍요로웠다.
 사실 10월 15일, 문화의 달 행사 일환으로
 멋스러운 정장차림의 커피 바리스타들과 한복의 자태들이
 너무나 고운 강릉차인연합회 회원분들의 연합공연은
 한옥과 함께 어우러져 상당한 아우라를 느끼게 해 주었다.
 일종의 새로운 발견이었던 셈이다.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 장면이 그토록 우아하게 연출될 줄 몰랐
 았다. 그것이 오래된 우리 전통의 힘이 아닐까?

강릉항, 마리오네뜨 커피머신 납시다!

강릉의 바다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졌다.

새벽 서서히 밝아오며 안개를 드리운 바다는 순백에 가깝다. 새살 돋듯이 솟는 아침햇살 머금은 바다는 빠알강다.

오전의 햇살에 일렁이는 바다는 은빛의 생선비늘을 닮았다.

오후의 바다는 비취빛의 영롱함으로 얼굴색을 바꾼다.

그 바다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안목 강릉항 바닷가.

거기에 커피축제 행사장이 있다.

1층에선 커피볶는 냄새와 연기가 자욱하다.

한쪽에선 커피의 눈물로 일컬어지는 더치커피가 내려지고 있고, 열의 대류현상을 이용한 사이폰도 중간중간 열을 뿜어낸다.

갓 볶은 커피를 갈아 내릴 때 퍼지는 커피향은 맛본 사람만이 안다.



2층에 오르면 시원한 전망대와 함께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커피볶는 기계인 ‘자작로스터기’를 만날 수 있다.

거기에서 만나는 마리오네뜨 인형.

영화 「크리스마스의 악몽」에 나오는 인형이 한쪽에선 커피를 볶고 있고, 한쪽에선 영차영차 커피를 갈고 있다. 참 신기한 일 아닌가?

커피는 이처럼 다양한 문화와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마리오네뜨가 같은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시간마다 변하는 안목해변 푸른 바다를 둘러보는

호사는 보너스다.

역사의 숨결, 임영관 강릉대도호부에서 커피향 그윽하게.

커피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 단연코 아니다.

커피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상상력의 시연장.

신화의 시대부터 강릉의 중심이었던 임영관지

강릉대도호부로 잡았다. 역사문화공간에는 전통수공예부터

커피염색까지 공예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꺼리로 축제장이 꾸며졌다.

커피를 볶아보기도 하고, 커피콩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비즈아트나 목판에 그려보는 우드버닝화까지
다양한 체험을 만날 수 있다.
녹차나 수국차를 만나기도 하고, 손으로 빚은 수제파이,
곶감초콜릿과 같은 이색 슬로푸드전도 함께했다.

커피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상상력.
거기엔 커피아로마와 커피비누, 커피막걸리 등
새로운 콘텐츠도 선보였다.



강릉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커피체험.

그곳에 가보고 싶고 맛보고 싶은 끼리를 만들고 싶었다.

늘 열패감에 빠져 날마다 강릉문화가 죽었느니,

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문화가 죽어가고 있다고

성토향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이다.

(도대체 이런 류의 인식을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틀이 놀라울 따름이다. 문화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닐뿐더러 돈 몇 푼에 생사를 논할 성격이 못된다)

문화는 늘 대다수 민중들에 의해 만들렸지 어느 특정계층이나 기관의 예산지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열풍이

정부의 한정된 예산이나 지원으로 가능했겠는가?

물론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새날을 만들어가기 위한 열정은 늘 새벽으로 치달아 오른다.

졸린 하루는 늘 벅찼다.

하지만 날마다 상상하고, 날마다 창조하리라.

그것이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이번 커피축제에서 새롭게 선보인 바리스타경연대회와

커피기기전시회. 실내체육관은 새로운 청춘들로 북적였다.

그들이 강릉까지 몇 시간을 달려온 이유는 무엇일까?
커피를 사랑하는 애호가들이기도 했지만
강릉만의 이미지와 풍경이 있단다.
그들이 말하는 강릉은 제주도에 버금가는 동네다.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도 놀랍고,



경포바닷가에 산책로며 분수가 놓인 것도 놀랍고,
 커피축제와 같은 콘텐츠의 재발견에도 놀라고 부러워한다.
 사실 그들은 ‘강릉’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러워했다.
 커피잔 위에 그림을 그려놓은 그 청춘의 열정들은
 날마다 싱싱했다. 비오는 토요일에도 야외에서 합성을 지르며
 계절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식 슷블로스팅 서덕식 선생님의 시연에 몰두할 줄 알았고,
 다른 팀의 우승에 박수보낼 줄 알았다.
 그래서 청춘인 것을.
 또한 한국의 커피명장들이 강릉커피축제에 세미나 강사로 올랐다.
 우리커피연구회 이정기 회장님,
 슷블로스팅의 대가 서덕식 선생님, 테라로사 김용덕 대표님,
 박종만 왈츠와닥터만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강릉커피축제를 위해 기꺼이 참석해주셨다.
 커피&티 지영구 국장님의 남다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강릉커피를 풍성하게 만들어준 그분들의 노고 덕분에
 한 잔의 커피와 커피문화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스타벅스가 개척한 커피산지 중국 망시(芒市) 강릉에 오다! 일본 유명 커피메이커 고노커피 사장단 방문

스타벅스가 중국 운남성의 차밭을 갈아엎고

커피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었다.

그곳이 망시다.

지난해 12월에 망시에서 처음으로 커피문화제를 개최했다.

홍보대사는 놀랍게도 한국가수 ‘장나라’ 였다.

중국에서 장나라의 인기는 실로 대단한 모양이다.

당서기가 주최하는 만찬에서 장나라측이

우리 강릉에서 커피축제를 한다고 했단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오히려 우리측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이번에 망시 시장을 단장으로 고위급 대표단이

강릉커피축제를 방문했다.

목표는 한국의 커피문화를 배우고 싶어서란다.

그들의 열정 또한 대단했다.

축제의 현장 이모조모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았고,

이색 물품들은 아낌없이 구입하기도 했다.



커피축제의 또 하나 이벤트는 일본 대표커피의 하나인
‘고노커피 사장단’ 이 직접 방문하여
‘행복한 모루’ 에서 ‘고노커피세미나’ 를 개최한 것이다.
사전 인터넷접수만 했는데도 모두 100여명이상의 커피애호가들
이 모여들었다. 고노커피측은 커피세미나와 함께 즉석 사이폰 기
기를 활용한 커피드립을 시연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한 방청객들의 뜨거운 열기는 비오는 토요일을 화려하게
변화시켰다. 그 하나하나가 커피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리라.

중국과 일본에 이어
필리핀 아마데오시 방문단도 강릉커피축제를 찾았다.
강릉시와 문화교류를 시작한 아마데오시도
커피생산지 중 하나이다.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중 하나인 필리핀도
사실은 한국과 심정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일찍부터 커피를 생산했지만 여전히 삶은 열악한 편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강릉커피축제에 또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향후 아마데오시와의 점진적인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커피축제,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창조적 상상력으로

정동진 하슬라아트월드에서는 커피국제미술제가 열렸다.
커피를 테마로 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들로
예술혼을 일깨우자는 것이다.

도심 곳곳에서는 커피작은음악회와 사진전이 열렸고,
주문진에서는 커피향에 물든 크루즈 유람선이 떠다녔다.
커피뷰는 사찰 현덕사에서 프라이어팬에 커피를 볶는가 하면,
템플스테이로 고즈넉한 산사에서 커피를 맛보게 했다.

경포호수광장에서는 파란 잔디위에
예술작품과 함께 하는 주말 커피시음행사가 열렸다.

또한 야간무대로 강릉무용협회에서
호수와 솔밭을 배경으로 한국무용을 선보여
색다른 이벤트로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국악협회에서는 10월을 마지막 날,
임영관 동헌마루에서 차 한잔에 우리의 소리를 깃들이는
예향 강릉의 풍류를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또한 임영관지에서는 관동대 소셜리포터 학생들이 출동,



가난한 커피생산국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유니세프 모금활동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환경을 생각하는 커피축제로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마카다인형’을 만들어가는 환경캠페인을 펼쳐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도 받은 바 있다. 또한 커피와 관련된 영화를 서울분수광장에서 개최하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했다. 커피영화제. 커피를 생산하는 풍경이 담겨진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비롯, ‘티파니에서 아침을’, ‘소중한 날의 꿈’ 등 주옥같은 명화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커피의 날 선포식, 10월 31일은 커피의 날

국악과 무용, 관현악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하얀 천 위에 잘 갈아 모아둔 커피가루를 뿌려
커피의 날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것이다.

그동안 10월의 마지막은 어느 가수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로
만 기억되어 왔는데 새로이 커피의 날로 기억해보자는 것이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강릉커피축제와 함께.

커피로 생각하고 문화로 풀어가는 축제.
그 축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아직 걸음마단계이긴 하지만 상상력은 날마다 성장한다.
비온 후에 죽순처럼 뻗어나가 튼실한 뿌리를 만들어가리라.
함께 동고동락하며 힘을 보태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인사 드린다.

티끌만큼의 작은 성과라도 인정받을 부분들이 있다면
모두 그분들의 덕분이다.

이제 새로운 커피밭의 진통은 또 시작될 것이다.

그리하여 봄날의 새싹처럼

하얀 커피꽃으로

커피축제는 다시금 피어오르리라.





환경캠페인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인형만들기_커피부엉이

강릉에는 커피부엉이도 있어요.

커피찌꺼기에 주목해 환경캠페인을 착안한 ‘
커피큐브’ 임병걸 대표. 그것이 커피로 만든
새로운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2년째 커피부엉이에 미친 남자.

커피찌꺼기를 카페마다 찾아다니며 끌어모아
작고 귀여운 인형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

어린이들이 커피로 흉장난을 하는 풍경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커피찌꺼기를 새로운 장난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참신하면서도 즐거운 상상이다.

미술작가들이 함께 재능기부로 공동작업을 하여
강릉커피 캐릭터인 마카다 대형 설치미술을 진행하는가 하면,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커피 캐릭터 인형을 만들기도 한다.

그가 만든 이 새롭고 재미있는 아이콘이
착한 커피의 대명사로 거듭나고 있다.

강릉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커피부엉이도 있다.

커피로 상상하라, 그것이 산업이 된다! 강릉에는 커피비누, 커피마스크팩, 커피막걸리도 있다!

커피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커피화장품이 만들어지고 있고, 커피비누,

커피아로마는 물론이다.

커피비누와 화장품을 만드는 <만들자 천연비누> 박주희 원장은

‘커피는 여러 가지 효용가치가 있다.

그중에 스크럽 효과와 세정효과가 특히 뛰어나

비누와 화장품에 적합한 소재’ 라 단언한다.

그가 만드는 커피 관련 제품은 수십 여종에 달한다.

아울러 강릉스파테라피연구회에서는 커피마스크팩을 개발했다.

커피의 세정력에 주목한 것이다.

피부미용 전문매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믿는다.

커피로 팩을 할 수 있을까?

한여름 자외선으로 지친 피부가 사실 커피를 만나면

시원하면서도 청정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팩을 하는 동안의 힐링타임. 그래서 웰빙이 되는 거다.

또한 커피막걸리는 어떠한가?

새콤달콤하면서 달짝지근한 뒷 맛이 묘한 매력을 끄는
커피막걸리.

강릉전통주연구회 정채성 대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작품이다. 커피막걸리는 텁텁한 막걸리의 맛을
중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새콤한 커피체리 고유의 맛을
살려내는 특별한 맛을 낸다.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커피막걸리 사고 싶다고 아우성인데
아직 판매할 정도의 양은 아니라며 극구 사양한다.

커피막걸리 시음행사는 커피축제 내내 최고의 콘텐츠였다.
강릉은 커피로 만든 막걸리도, 비누도, 마스크팩도 있다.



커피로 얻고, 커피로 잃은 것들

커피축제를 열면서 경제적 소득과 커피문화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많은 소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커피의 상상력은 많은 2차 창작물을 만들어냈다.

커피캐릭터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 상품들,

또한 커피를 활용한 커피막걸리, 커피 아로마, 마스크팩,

커피 비누, 커피공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커피의 아우라로 경제적 저변확대까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더 많은 창조적 아이디어들이 생산되고,

소멸되기를 거듭해야만이 층이 두터워지고, 건실해질 터이다.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그로 인한 열정을 얻되,

고즈넉함은 잃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헐레벌떡 삶과도 잇닿아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커피산책로를 통해 한번쯤 쉬어가며

관조하는 작은 쉼표를 찍기는 했지만 아직은 미약하다.

돌아보면 허점투성이지만 지나간 시간은 늘 빛바랜 사진처럼

아련한 추억으로 채색되어진다. 다시 새로운 상상을 꿈꾸리라.

창조적 열정들로 새벽별을 채우리라.

늘 내일은 꿈꾸는 자들의 몫이다.



강릉커피가 특별한 몇 가지 사소한 이유들

물맛이

깔끔해야 커피나 차의 참 맛을 느낄 수 있음

- 평창수와 강릉지역 물맛은 깔끔하고 잔 맛이 없음
- 신라화랑들의 국내 유일 차문화 유적지 <한송정>도 물맛의 비결.
- 백두대간 석간수 청정함이 커피의 맛을 더함.
- 롯데주류 소주공장이 강릉 대관령 끝자락에 있는 것도 그 이유.

한국커피의 원조는 고종황제, 1세대는 개화기 문인들이!

- 1896년 고종황제의 아관파천으로 러시아공사관에서 커피를 배움
- 1930년대 이후 유학파 문인들에 의해 본격적인 카페문화 전파
(오감도), <날개>의 작가 이상은 여러번 카페를 열었다가 망함.
- 카페는 오랜세월 문인들의 아지트.
문인들의 고향인 문학도시 강릉이기에 차, 커피문화 일찍 발달
- 이미 60~70년대 전시회를 다방에서 했던 기록이 있음

커피1세대 박이추,

커피공장 테라로사 강릉에 일찍 점화!

- <3박 1서>의 한국커피 1세대 중 유일한 현역활동중인 박이추선생
- 강릉에 2000년대 초부터 바리스타/로스팅아카데미 일찍 시작
- 커피 전문가집단 다수 배출
- 특히 강릉엔 커피를 직접 볶는 집들이 많음
테라로사와 보헤미안, 커피히피 등 커피 직접볶는 문화급속전파

커피, ‘집밥’ 처럼 갓 볶은 싱싱함!

- 커피를 직접 볶는 문화가 상당히 보편화 됨.
- 1Kg 정도의 소량으로 커피를 볶기에 2~3일단위 소진됨.
- 원두커피전문점 190여개 중 로스터리 카페 79개 점포임.
아직 스타벅스가 없을 정도로 강릉은 프랜차이즈가 오히려 적음.

시민들 다수가 수준급 커피전문가이자 맛집 평가단!

- 새로운 커피집이 생기면 몰려가 커피맛에 별점 매기는 수준
- 커피 맛, 분위기, 사이드메뉴, 서비스까지 평가
- 시내권, 안목, 경포, 사천, 연곡권 등 권역별 맛집 1,2,3위 손꼽아.

카페의 진화는 무죄?

- 에티오피아, 브라질, 아프리카 등 특정지역 브랜드전문점 일찍 자리잡음
- 이후 빈티지카페, 한옥카페, 건축디자인카페, 떡카페 등 다양한 형태 진화
- 자고나면 커피집이 생겨날 정도로 다변화

커피가 도시문화를 바꾸고 있다!

- 저녁 회식후 2차로 커피마시는 풍경.
술 권하는 사회가 차와 대화를 즐기는 사회로 변모중.
- 사무실에서 원두커피 내려 마시는 풍경.
사무실에서 핸드밀과 추출기 가져다놓고 은은한 커피향 즐김.
- 커피도시락 싸는 사람들
원두커피로 도시락 싸서 다니는 진풍경.
- 커피볶는 사찰? 템플스테이 <현덕사>
부처님이 요즘 태어나셨으면 틀림없이 커피드셨을 것이라는....



